

● 제298회 ●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 2021년도 복지정책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2020. 11. 2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 서울특별시장 제출 】

의안번호 2045, 2046

### I. 예산안 개요

####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안일 : 2021. 10. 30.
- 다. 회부일 : 2021. 11. 02.

#### 2. 예산안 규모 및 특징

##### 가. 세입예산

- 2021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세입예산(안)은 2020년도 최종 예산대비 6.3% 증액된 5조 2,151억 1천 7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 〈2021년도 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2020년 최종예산	2021년 예산(안)	2020대비 증감	증감률
합 계	4,906,292,373	5,215,117,367	308,824,994	6.3%
일반회계	3,423,423,229	3,546,549,405	123,126,176	3.6%
200 세외수입	54,437,772	54,390,406	△47,366	△0.1%
210 경상적세외수입	14,004,953	14,970,268	965,315	6.9%
220 임시적세외수입	40,432,819	39,415,663	△1,017,156	△2.5%
230 지방행정체재·부과금	-	4,475	4,475	순증
300 지방교부세	170,000	-	△170,000	순감
310 지방교부세	170,000	-	△170,000	순감
500 보조금	3,357,522,725	3,475,231,671	117,708,946	3.5%
510 국고보조금등	3,357,522,725	3,475,231,671	117,708,946	3.5%
600 지방채	-	2,400,000	2,400,000	순증

예산과목 (장/관/항/목)	2020년 최종예산	2021년 예산(안)	2020대비 증감	증감률
610 국내차입금	-	2,400,000	2,400,000	순증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1,292,732	14,527,328	3,234,596	28.6%
710 보전수입등	11,292,732	14,527,328	3,234,596	28.6%
<b>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b>	1,482,869,144	1,668,567,962	185,698,818	12.5%
200 세외수입	2,904,857	3,131,935	227,078	7.8%
210 경상적세외수입	562,471	189,058	△373,413	△66.4%
220 임시적세외수입	2,198,509	2,783,964	585,455	26.6%
23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43,877	158,913	15,036	10.5%
500 보조금	752,382,217	830,924,166	78,541,949	10.4%
510 국고보조금등	752,382,217	830,924,166	78,541,949	10.4%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27,582,070	834,511,861	106,929,791	14.7%
710 보전수입등	5,199,853	3,587,695	△1,612,158	△31.0%
720 내부거래	722,382,217	830,924,166	108,541,949	15.0%

## 나. 세출예산

- 복지정책실 소관 2021년 세출예산(안)은 8조 3,622억 1천 6백원으로 2020년도 최종예산 8조 1,866억 9백만원 대비 2.1% 증액된 수준임.

### 〈2021년도 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천원, %)

구 분	2020년 최종예산	2021년 예산(안)	2020년대비 증감	증감률
계	(×4,109,904,942) 8,186,609,468	(×4,306,155,837) 8,362,215,656	(×196,250,895) 175,606,188	2.1
일반회계	(×3,357,522,725) 6,689,346,948	(×3,475,231,671) 6,692,050,227	(×117,606,188) 2,703,279	0.0
사업비	(×3,357,522,725) 5,693,944,175	(×3,475,231,671) 5,847,279,736	(×117,708,946) 153,335,561	2.7
행정운영경비	590,073	584,388	△5,685	△1.0
재무활동비	994,812,700	844,186,103	△150,626,597	△15.1
특별회계	(×752,382,217) 1,497,262,520	(×830,924,166) 1,670,165,429	(×78,541,949) 172,902,909	11.5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52,382,217) 1,482,869,144	(×830,924,166) 1,668,567,962	(×78,541,949) 185,698,818	12.5
사업비	(×752,328,642) 1,482,761,994	(×830,871,812) 1,668,463,254	(×78,543,170) 185,701,260	12.5
행정운영경비	(×53,575) 107,150	(×52,354) 104,708	(×△1,221) △2,442	△2.3
도시개발특별회계	13,588,442	1,045,000	△12,543,442	△92.3
균형발전특별회계	804,934	552,467	△252,467	△31.4

- 2021년도 정책·단위·세부사업별 예산

(단위: 백만원, %)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	2020년 최종예산	2021 예산안	최종예산대비	
			증감	증감률
<b>복지정책실</b>	<b>8,186,609</b>	<b>8,362,215</b>	<b>175,605</b>	<b>2.1%</b>
<b>복지정책과</b>	<b>3,696,964</b>	<b>3,607,437</b>	<b>△89,527</b>	<b>△2.4%</b>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2,721,382	2,763,031	41,649	1.5%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138,249	112,915	△25,334	△18.3%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1,006,561	881,267	△125,294	△12.4%
지역중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56,103	58,113	2,010	3.6%
민간의 자율적 참여 확대에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37,707	42,273	4,566	12.1%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482,762	1,668,463	185,701	12.5%
행정운영경비(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410	375	△35	△8.6%
기본경비	303	270	△33	△10.9%
인력운영비(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07	105	△2	△2.3%
일반예산(재무활동)	975,171	844,031	△131,141	△13.4%
내부거래지출(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972,562	843,950	△128,612	△13.2%
보전지출(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2,609	81	△2,528	△96.9%
<b>지역돌봄복지과</b>	<b>349,111</b>	<b>281,036</b>	<b>△68,075</b>	<b>△19.5%</b>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349,053	280,977	△68,076	△19.5%
사회취약계층 복지 강화	100,917	94,584	△6,333	△6.3%
민간의 자율적 참여 확대에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3,895	3,193	△702	△18.0%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등	244,242	183,201	△61,040	△25.0%
행정운영경비(복지정책실 지역돌봄지원과)	56	58	2	3.4%
기본경비	56	58	2	3.4%
일반예산(재무활동)	1	0	△1	△100.0%
보전지출	1	0	△1	△100.0%
<b>어르신복지과</b>	<b>2,582,979</b>	<b>2,896,237</b>	<b>313,257</b>	<b>12.1%</b>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2,573,540	2,896,180	322,640	12.5%
어르신 요양 인프라 구축	246,542	263,524	16,982	6.9%
어르신 생활안정지원 및 어르신단체 육성 등	2,236,539	2,535,554	299,015	13.4%
독거·재가어르신 종합서비스 확대	55,118	55,243	125	0.2%
장사시설의 현대화 및 운영 내실화	35,341	41,859	6,518	18.4%
행정운영경비(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53	57	4	6.7%
기본경비	53	57	4	6.7%
재무활동(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9,386	0	△9,386	△100.0%
보전지출	9,386	0	△9,386	△100.0%
<b>인생이모작지원과</b>	<b>331,941</b>	<b>302,267</b>	<b>△29,674</b>	<b>△8.9%</b>
인생이모작지원 기반마련	327,333	302,227	△25,106	△7.7%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	2020년 최종예산	2021 예산안	최종예산대비	
			증감	증감률
은퇴후 제2인생 설계지원	223,922	210,068	△13,854	△6.2%
은퇴후제2인생설계지원(도시개발특별회계)	13,588	1,045	△12,543	△92.3%
어르신 여가복지 지원	89,823	91,114	1,291	1.4%
행정운영경비(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39	40	1	3.9%
기본경비	39	40	1	3.9%
재무활동(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4,569	0	△4,569	△100.0%
보전지출	4,569	0	△4,569	△100.0%
<b>장애인복지정책과</b>	<b>260,710</b>	<b>278,552</b>	<b>17,842</b>	<b>6.8%</b>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259,742	278,426	18,684	7.2%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182,150	191,374	9,224	5.1%
장애인 취업지원 확대	72,933	81,983	9,050	12.4%
장애인단체 사회참여 지원	2,005	1,157	△848	△42.3%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2,655	3,913	1,259	47.4%
행정운영경비(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55	63	8	14.6%
기본경비	55	63	8	14.6%
재무활동(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913	63	△850	△93.1%
보전지출	913	0	△913	△100.0%
내부거래지출	0	63	63	순증
<b>장애인자립지원과</b>	<b>767,922</b>	<b>820,412</b>	<b>52,490</b>	<b>6.8%</b>
장애인자립기반 구축	765,745	820,267	54,522	7.1%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738,099	792,442	54,344	7.4%
행정운영경비(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44	53	9	20.9%
기본경비	44	53	9	20.9%
재무활동(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2,133	91	△2,041	△95.7%
보전지출	2,133	0	△2,133	△100.0%
내부거래지출	0	91	91	순증
<b>자활지원과</b>	<b>196,982</b>	<b>176,274</b>	<b>△20,708</b>	<b>△10.5%</b>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59,455	57,480	△1,975	△3.3%
노숙인 자활지원	32,374	33,432	1,058	3.3%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27,081	24,048	△3,032	△11.2%
저소득시민 자활지원	134,848	118,751	△16,097	△11.9%
저소득시민 자활사업 운영지원	134,848	118,751	△16,097	△11.9%
행정운영경비(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40	43	3	7.4%
기본경비	40	43	3	7.4%
일반예산(재무활동)	2,639	0	△2,639	△100.0%
보전지출(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2,639	0	△2,639	△100.0%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 II.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이문성)

### I 세입 예산안 검토

- 복지정책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이루어져 있으며, 2021년 세입예산은 총 5조 2,151억 1천 7백만원으로 '20년 세입예산 총 4조 9,062억 9천 2백만원보다 3,088억 2천 5백만원 증액(6.3%) 편성되었음.

#### 〈2021년 세입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최종예산	2021년 예산(안)	증 · 감	
			증감액	비 율(%)
계	4,906,292	5,215,117	308,825	6.3
일 반 회 계	3,423,423	3,546,549	123,126	3.6
특 별 회 계 ( 의 료 급 여 기 금 )	1,482,869	1,668,568	185,699	12.5

####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조 5,465억 4천 9백만원으로 2020년도 3조 4,234억 2천 3백만원보다 1,231억 2천 6백만원 증액(3.6%)되었음.

## ○ 공유재산 임대료

- 공유재산임대료는 서울시복지재단 청사 사용료(임대료 149백만원) 및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청사 사용료(174백만원)에 대한 임대료 수입과 승화원·추모공원 매점 등 임대수입(405백만원)으로서, 7억 2천 8백만원(전년대비 42.1% 감액)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 〈재산임대수입 세부내역〉

(단위: 천원, %)

과 목	2020년	2021년	증 감	증감률	내 역
재산임대수입	1,258,085	728,047	△530,038	△42.1%	<b>〈복지정책과〉 322,704</b> ○ 서울시복지재단 청사 사용료 149,115 ○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청사 사용료 173,589 <b>〈어르신복지과〉 405,343</b> ○ 승화원 및 추모공원 임대수입 405,343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2조(일반재산 대부 등의 준용) 행정재산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교환차금을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36조의2를 준용한다.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립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립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으로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삭제
4. 「문화예술킨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을 「민법」 제39조에 따른 영리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
5.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이 교육활동 목적으로 사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 수수료 수입 및 사업수입

- 수수료 수입은 승화원과 추모공원 제증명 수수료(화장 및 납골증명 등 증지수입)를 반영한 것으로서 세입추계는 다음 표와 같음.

〈2021년 수수료 수입 세부내역〉

(단위: 천원, %)

과 목	2020년	2021년	증 감	증감률	내 역
수 수 료 수 입	33,826	35,710	1,884	5.6%	<어르신복지과> ○ 승화원 및 추모공원 제증명 수입 35,710

- 2021년 추계액 : 35,710천원
- 산출내역 ('21년도 예상화장건수 × '19년도 화장 1구당 평균 제증명 발급건수 × 400원)
  - 승화원 제증명 수입 : 35,838건(화장) × 1.62건 × 400원 = 23,223천원
  - 추모공원 제증명 수입 : 18,807건(화장) × 1.66건 × 400원 = 12,487천원

〈2021년 사업수입(주차장 수입 및 그외) 세입추계〉

(단위 : 천원, %)

과 목	2020년	2021년	증 감	증감률	내 역
사 용 료 수 입	74,151	80,752	6,601	8.9%	<어르신복지과> ○ 서울추모공원 주차장 수입 71,784 <장애인자립지원과> ○ 송전선로 통과 토지점용료 8,968

- 2021년 추계액 : 8,0752천원
- 산출내역
  - 1) 서울추모공원 주차장 수입 :71784천원  
 21년도 예상화장건수 X '19년도 화장 1구당 평균 개인차량 이용건수 X 1건당 평균 주차료  
 - 18,209건(화장) x 1.99건 x 1,974원 = 71,784천원  
 \*시립승화원 2017년부터 무료화로 2018년도부터 예산편성 제외
  - 2) 송전선로 통과 토지점용료 : 8,968천원  
 - 1,102㎡(토지면적) × 2,504천원('20년 공시지가×1.07) × 0.05(대부요율5%) × 0.065(입체이용저해율, 6.5%) =8,968천원 ※ 공시지가상승율 7%

과 목	2020년	2021년	증 감	증감률	내 역
사 업 수 입	12,206,826	13,618,493	1,411,667	11.6%	<b>&lt;어르신복지과&gt;</b> ○ 시립승화원 봉안사용료 수입 302,068 ○ 승화원 및 추모공원 봉안함 판매수입 383,295 ○ 시립승화원 자연장 사용료 수입 978,462 ○ 시립승화원 봉안·분묘관리비 수입 2,534,311 ○ 승화원 및 추모공원 화장료 수입 9,420,357

### <2021년 기타사업수입 세입추계>

- 2021년 추계액 : 13,618,493천원
- 산출내역
  - 화장료 수입 : 9,420,357천원(승화원 6,669,645천원, 추모공원 2,750,712천원)  
(승화원 : 19년도 일평균 화장현황×365×예상 화장증가율 2.8%)  
(추모공원 : 19년도 일평균 화장현황×365×예상 화장증가율 △1.0%)
  - 봉안 사용료 · 재사용료 : 302,068천원(최근 3개년간 봉안현황 평균치 산정)  
※ 재사용료는 '18년도 최초 일괄부과로 과대하게 잡혀, '18년을 제외한 2년 평균치 산정
  - 봉안 관리비 : 1,194,367천원(21년도 관리비 고지대상 × 4개년 관리비 평균징수율)
  - 분묘 관리비 : 1,339,944천원(21년도 관리비 고지대상 × 4개년 관리비 평균징수율)
  - 자연장 사용료 : 978,462천원(최근 3개년 평균치)
  - 봉안함 판매수입 : 383,295천원(승화원 : 211,286천원, 추모공원 : 172,009천원)  
(19년도 화장 1구당 평균 봉안함 수입금 × 21년도 예상화장건수)  
\* 승화원 봉안함 판매 사용료 : 35,838건(화장)×0.34건×17,340원=211,286천원  
\* 추모공원 봉안함 판매 수수료 : 18,807건(화장) × 0.36건×25,406원 = 172,009천원

### ○ 기타 수입

- 임시적 세외수입인 기타수입은 불용품매각대금 및 시도비 반환금 수입, 민간 시설 시비보조금 진행 잔액 반납과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전용카드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음.
- 기타 수입 세부내역을 보면 전년대비 4.5% 감소하였음.

### 〈기타 수입 세부내역〉

(단위: 천원, %)

과 목	2020년	2021년	증 감	증감률	내 역
기 타 수 입	37,562,423	35,884,427	△1,677,996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용품매각대 (10 → 14백만원)</li> <li>• 시도비반환금수입 - 자치구 반납 (29,715 → 29,347백만원)</li> <li>• 민간시설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4,647 → 4,271백만원)</li> <li>• 보조금카드 포인트 적립금 (3,191 → 2,252백만원)</li> </ul>

#### ○ 지난연도수입

- 시도비반환금수입 등 지난연도 부과한 세입 중 체납분(31억 3천만원)과 승화원 체납관리비 수입(4억 4백만원)을 반영한 세입 편성안임.

### 〈지난연도수입 세부내역〉

(단위: 천원, %)

과 목	2020년	2021년	증 감	증감률	내 역
지 난 연 도 수 입	2,870,396	3,531,236	660,840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비반환금수입 등 지난연도 부과한 세입 중 체납분 (2,567 → 3,127백만원)</li> <li>• 승화원 체납관리비 수입 (303 → 404백만원)</li> </ul>

#### ○ 국고보조금

- 2021년도 보건복지부로부터 교부받을 국고보조금의 가내시 통보금액을 반영하여 전년도 최종예산대비 3.5% 증액한 3조 4,752억 3천 2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의 변동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이 빈발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시 관련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정확하고 적정한 세입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집행부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국고보조금 세부내역〉

(단위: 천원, %)

과 목	2020년	2021년	증 감	증감률	내 역
국고보조금 등	3,357,522,725	3,475,231,671	117,708,946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고보조금 (3,340,740 → 3,457,079백만원)</li> <li>•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9,301 → 9,188백만원)</li> <li>• 기금 (7,482 → 8,965백만원)</li> </ul>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 2021년도 복지정책실의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수입은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14,463백만원)과 서울희망드림뱅크 융자금 원금 수입으로 전년 예산(6천5백만원) 대비 28.6% 증액된 145억 2천 7백만원의 예산을 추계·편성하고 있음.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세부내역〉

(단위: 천원)

과 목	2020년	2021년	증 감	증감률	내 역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1,292,732	14,527,328	3,234,596	2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1,205 → 14,463백만원)</li> <li>• 희망드림뱅크 융자금 수입 (88 → 65백만원)</li> </ul>

※ 서울희망드림뱅크 융자사업은 2009년과 2010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6개월 거치·54개월 상환기간 조건으로 융자된 것인 바, 2009년 융자수혜자는 2015년부터 2010년 수혜자는 2016년부터 연체지급 의무를 부담함.

- 2021년 서울희망드림뱅크 융자사업의 징수액을 추계할 때, 상환완료에 따른 융자금 회수규모 감소 및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 고용 불안정 등으로

으로 최근 3년간 평균 징수율(3%)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음.

### 〈서울희망드림뱅크 융자금 산출 내역〉

- 2021년 추계액 : 64,745천원
- 산출내역 : '20년도 말 융자금 회수 잔액 × 최근 3년간 평균 징수율(3%)
  - 2,158,198천원 × 0.03 = 64,745천원
  -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 고용 불안정 등으로 최근 3년간 평균 징수율 적용하여 '20년 대비 23백만원 감 편성

### 〈 최근 5년간 세부 내역별 징수 실적〉

(단위: 천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336,600	132,998	77,001	70,519	38,605(추정치)
융자금 원금 회수	336,600	132,998	77,001	70,519	38,605(추정치)

## 〈 2021년 일반회계 세입 예산 세부내역 〉

(단위 : 백만원)

과 목	2020년 최종예산	2021년 예산(안)	증 감	증감률	내 역
합 계	3,423,423	3,546,549	123,126	3.6%	
재산임대수입	1,258	728	△530	△4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복지재단 청사 사용료 (132 → 149백만원)</li> <li>•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청사 사용료 (154 → 174백만원)</li> <li>• 승화원·추모공원 매점 등 임대수입 (436 → 405백만원)</li> <li>• 50+재단 및 캠퍼스 임대수입 (528 → 0백만원)</li> <li>• 송전선로 통과토지 점용료 (8 → 0백만원)</li> </ul>
사 용 료 수 입	74	81	7	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추모공원 주차장수입 (74 → 72백만원)</li> <li>• 송전선로 통과토지 점용료 (0 → 9백만원)</li> </ul>
수 수 료 수 입	34	36	2	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립승화원 및 서울추모공원 제증명 수입 (34 → 36백만원)</li> </ul>
사 업 수 입	12,207	13,618	1,411	1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립승화원·추모공원 기타수입 (12,207 → 13,618백만원)</li> </ul>
이 자 수 입	432	507	75	1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 (432 → 507백만원)</li> </ul>
재산매각수입	10	14	4	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용품매각대 (10 → 14백만원)</li> </ul>
보조금반환수입	29,715	29,347	△368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비반환금수입 - 자치구 반납 (29,715 → 29,347백만원)</li> </ul>

과 목	2020년 최종예산	2021년 예산(안)	증 감	증감률	내 역
기 타 수 입	7,838	6,523	△1,315	1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시설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4,647 → 4,271백만원)</li> <li>• 보조금카드 포인트 적립금 (3,191 → 2,252백만원)</li> </ul>
지난연도수입	2,870	3,531	661	2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비반환금수입 등 지난연도 부과한 세입 중 체납분 (2,567 → 3,127백만원)</li> <li>• 승회원 체납관리비 수입 (303 → 404백만원)</li> </ul>
변 상 금	0	4	4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유재산 변상금 (0 → 4백만원)</li> </ul>
지 방 교 부 세	170	0	△170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르신 무더위쉼터 운영 (170 → 0백만원)</li> </ul>
국고보조금등	3,357,523	3,475,232	117,709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고보조금 (3,340,740 → 3,457,079백만원)</li> <li>•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9,301 → 9,188백만원)</li> <li>• 기금 (7,482 → 8,965백만원)</li> </ul>
지 방 채	0	2,400	2,400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립 서대문 농아인 복지관 별관 건립 (0 → 2,400백만원)</li> <li>※시 재정 여건 고려하여 건축사업비 일부 지방채 발행하여 마련 ('21년 사업비 34억원 중 24억원을 지방채로 마련)</li> </ul>
보 전 수 입 등	11,205	14,463	3,258	2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1,205 → 14,463백만원)</li> </ul>
융자금원금수입	88	65	△23	△2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희망드림뱅크 융자금 수입 (88 → 65백만원)</li> </ul>

## 나. 특별회계 세입예산

- 2021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20년의 1조 4,828억 6천 9백만원에 비해 12.5% 증액된 1조 6,685억 6천 8백만원을 증액(전년대비 증 1,856억 9천 9백만원) 편성하였음.

### 〈2021년 특별회계 세입 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 )

과 목	2020년	2021년(안)	증 감	증감률	내 역
계	1,482,869	1,668,568	185,699	12.5	
세외수입	2,905	3,132	227	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예금 이자수입 189</li> <li>◦ 의료급여사업 기타 잡수입 2,784</li> <li>◦ 의료급여법 제29조에 의한 과징금 수입 159</li> </ul>
보조금	752,382	830,924	78,542	10.4	◦ 의료급여 국고보조금 830,924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727,582	834,512	106,930	2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순세계잉여금 3,588</li> <li>◦ 의료급여사업 일반회계 전입금 830,924</li> </ul>

- 세외수입은 공공지예금 이자수입(189백만원), 의료급여사업 기타 잡수입(2,784백만원), 의료급여법 제29조에 의한 과징금 수입(15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7.8% 증액 되었음. 보조금은 의료급여 국고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10.4% 증액한 830,92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 수입등 및 내부거래 834,512백만원은 전년 대비 25.3% 증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
- 과징금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과징금 수입에 대한 결산 내역과 세입 추계를 보면 다음 표와 같음.



### 〈연도별 예산결산 내역 및 요구액〉

(단위 : 천원)

2017		2018		2019		2020			2021 요구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액	결산전망	징수액 (5월)	결산전망	
534,861,729	536,877,260	552,173,040	554,776,971	773,284,914	774,164,115	747,911,218	471,704,714	760,129,269	837,643,796

※ 국고보조금 제외

### 〈2021년 과징금 세입추계〉

- 2021년 추계액 : 158,913천원
- 산출내역: 의료급여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과징금 징수 수입

과 목	2020년 (최종예산)	2021년(안)	증 감	증감률	내 역
합 계	1,482,869	1,668,568	185,699	12.5%	
세 외 수 입	2,905	3,132	227	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요금 이자수입 189</li> <li>◦ 의료급여사업 기타 잡수입 2,784</li> <li>◦ 의료급여법 제29조에 의한 과징금 수입 159</li> </ul>
국 고 보 조 금	752,382	830,924	78,542	1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급여 국고보조금 830,924</li> </ul>
보전수입등 및 내 부 거 래	727,582	834,512	106,930	2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순세계잉여금 3,588</li> <li>◦ 의료급여사업 일반회계 전입금 830,924</li> </ul>

## II 세출 예산안 검토(조직별 예산안 총괄적 검토)

### 가. 총괄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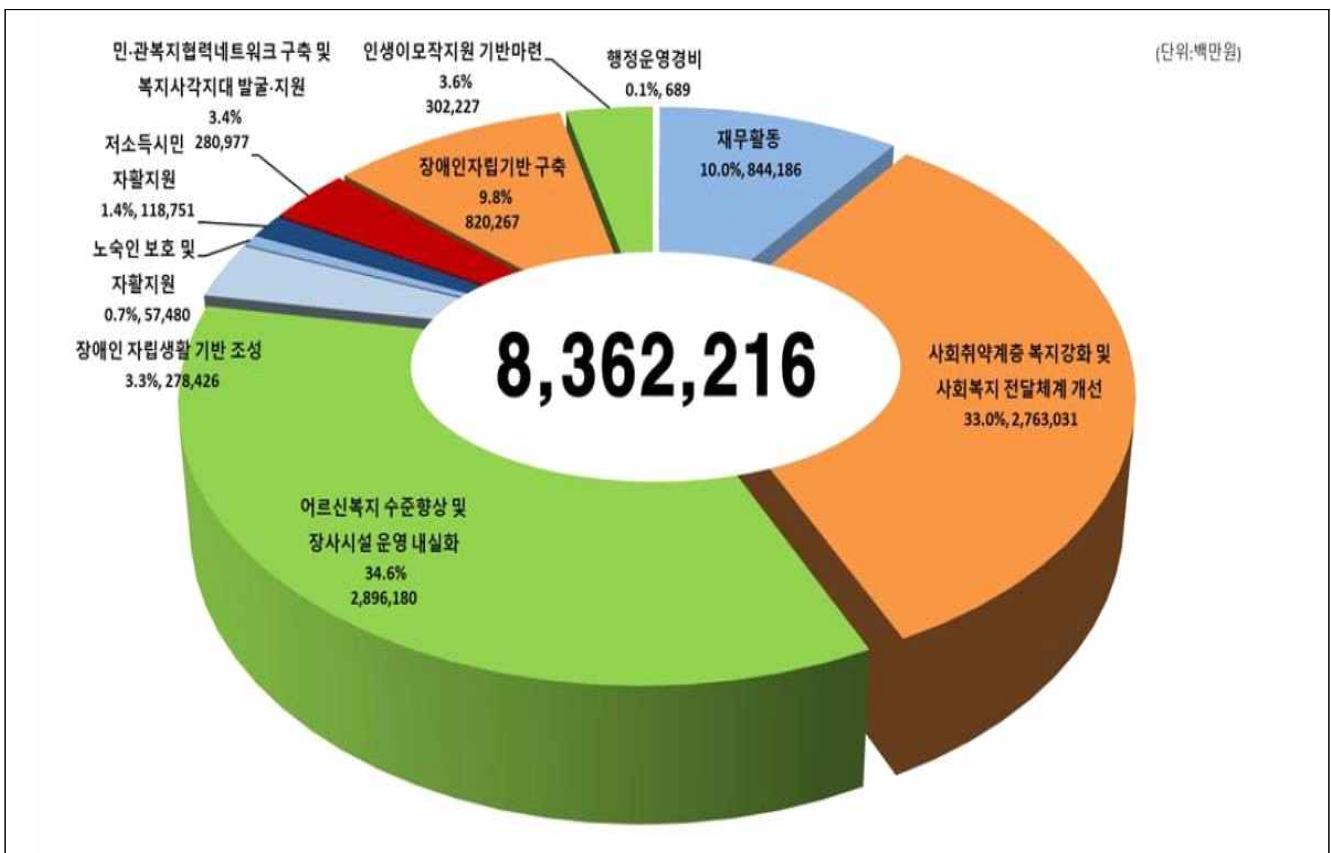
- 2021년 서울시 복지정책실 예산편성 방향은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기초생활 보장, 어르신 및 장애인 등의 보편적 일상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복지 증진’이라는 목표를 가짐. 또한 7개 정책 사업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세부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 <2021년도 복지정책실 정책별 사업목표>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저소득시민 생활안정 지원 및 지역중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li><li>○ 찾아가는 복지 확대로 촘촘한 발굴체계 구축을 통한 위기가구 지원체계 강화</li><li>○ 좋은 돌봄을 위한 공공인프라 확충 맞춤형 지원을 통한 돌봄서비스 실현</li><li>○ 50+ 인생이모작 지원기반 마련 및 어르신 여가복지 지원</li><li>○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및 취업지원 등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반조성</li><li>○ 장애인 자립지원 및 이동편의 증진으로 장애인자립기반 구축</li><li>○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강화</li></ul> |
|---|
- 2021년도 복지정책실 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1,756억 7백만원 증액된 (2.2%) 전체 8조 3,622억으로 편성되었음.
    - 2020년 본예산은 7조 7,042억원으로 2020년 코로나 19로 인하여 추가 경정 예산안을 4회 실시하여 4,824억원 증가한 8조 1,866억원이 최종예산으로 확정되었음.
  - 정책 사업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과 복지서비스 혁신을 통한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사업 2조 7,630억원(36.8%),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 각지대 발굴 지원 정책사업에 2,810억원(3.7%),

- 초고령 시대에 대비한 어르신복지 맞춤형 복지 실현 정책사업에 2조 8,962억원(38.5%), 50+ 인프라 확충을 통한 50+지원기반 마련 및 어르신 일자리 발굴 활성화 정책사업에 3,022억원(4.0%),
  -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정책사업에 2,784억원(3.7%), 장애인의 자립 역량 강화로 실질적 자립 도모 정책사업에 8,203억원(10.9%) 사회취약계층 보호 및 자활지원 강화 정책사업에 575억원(0.8%) 순으로 편성하였음.
- 주요 증액 사유는 국비매칭 사업의 확대를 들 수 있으며, 관련 사업으로는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신규 수급자가 증가한 기초연금('20년 소득하위 40% → '21년 70%)이 2,990억원 증액되었음.

### 〈2021년도 복지정책실 정책별 예산 규모 현황〉



## 1. 복지정책과

- 복지정책과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과 복지서비스 혁신을 통한 전달체계 개선을 목표로 하여 2020년 최종예산 3조 6,969억 6천4백만원에서 2.4% 감소한 3조 6,074억 3천8백만원으로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 〈복지정책과 주요 세부 사업 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2020예산(A)	2021예산(B)	증감(B-A)	변화율
□ 주요 증액사업(10% 이상)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23,568,720	26,193,200	2,624,480	11.1%
생활복지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1,175,227	1,578,294	403,067	34.3%
사회복무요원 봉급 등 지원	(×27,237,275) 30,627,281	(×31,533,796) 34,937,308	(×4,296,521) 4,310,027	14.1%
서울시복지재단 출연금	37,239,584	41,696,883	4,457,299	12.0%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지원	432,049	540,896	108,847	25.2%
의료급여사업	(×751,052,569) 1,480,209,848	(×829,633,000) 1,665,985,630	(×78,580,431) 185,775,782	12.6%
□ 주요 감액사업(10% 이상)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	(×1,928,000) 2,892,000	(×1,668,000) 2,502,000	(×△260,000) △390,000	△13.5%
보훈단체 지원	3,561,100	2,615,800	△945,300	△26.5%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등 지원	673,000	473,000	△200,000	△29.7%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19,934,540	12,231,000	△7,703,540	△38.6%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 추진 및 복지인프라 공공성 강화	98,200	78,200	△20,000	△20.4%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931,200) 22,443,884	(×954,900) 20,120,105	(×23,700) △2,323,779	△10.4%

- 주요 증액사업은 생활복지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34.3%)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임.
  - 생활복지 통합정보시스템은 시민 건강, 복지 향상 및 효율적 지원을 위한 시스템 개선 운영하는 사업임.
  - 예산의 주요 증액 사유로는 복지서비스 비대면 신청 4종 등 사용자 요구사항 수렴을 위한 기능 개선으로 1억 2천 5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또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지원 예산이 전년대비 4억 3천 2백만원 (25.2%)이 늘어난 5억 4천 1백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남.
  - 서울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은 사회복지에 관한 정책방향·시행계획 등 중요사항 연구·조정하고 생활보장사업 시행계획 심의, 사회복지법인 이사 추천, 서울시민복지기준 평가·시민발표 등을 실시하고 있음. 위원회 구성은 총 29명(위촉직 27명, 당연직2)이며,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간임.
  - 집행부에서는 사회보장위원회 관련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하게 됨.
- 주요 감액사업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38.6%),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등 지원(29.7%) 으로 나타나고 있음.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서울시의 생활여건 등을 반영한 제도임. 예산 감액 사유로는 정부제도 완화에 따른 대상자 감소를 들 수 있음.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등 지원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및 국내외 단체연수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코로나19 장기화로 단체연수 인원 축소로 200백만원 감액하였음.

## 2. 지역돌봄복지과

- 지역돌봄복지과는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목표로 하여 2020년 최종예산 3,491억 1천 1백만원에서 19.5% 감액된 2,810억 3천6백만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음.

### 〈지역돌봄복지과 주요 세부 사업 현황〉

#### 〈표〉 지역돌봄복지과 주요 세부 사업 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2020예산(A)	2021예산(B)	증감(B-A)	변화율
□ 주요 증액사업(10% 이상)				
서울 돌봄 SOS 센터 설치 운영	14,275,294	31,824,950	17,549,656	122.9%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강화 사업	(×70,000) 70,000	(×100,000) 100,000	(×30,000) 30,000	42.9%
□ 주요 감액사업(10% 이상)				
종합복지관 기능보강	4,467,708	687,849	△3,779,859	△84.6%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 지원	3,362,803	2,709,263	△653,540	△19.4%
긴급복지지원사업	(×33,844,000) 50,766,000	(×20,023,000) 30,034,500	(×△13,821,000) 0) △20,731,500	△40.8%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26,655,752	13,887,406	△12,768,346	△47.9%
찾아가는 복지활성화	1,055,800	686,500	△369,300	△34.9%
지역기반 복지공동체 구축	1,316,261	1,000,817	△315,444	△23.9%
고독사 예방사업	1,375,000	395,000	△980,000	△71.3%
□ 신규사업				
지역맞춤형 영유아조개입체계 구축하기	0	800,000	800,000	100%

- 주요 증액사업은 서울 돌봄 SOS센터 설치 운영(122.9%)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임.
  - 돌봄 SOS센터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돌봄공백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여 가사·간병 및 일상편의 등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임. 파편적으로 진행되던 돌봄서비스의 통합적 연계를 위해 '19년 도입되었으며 20년 전 자치구로 조기 확대되었음.
  - 예산의 주요 증액 사유로는 25개 전 자치구 사업 실시에 따른 홍보 강화 및 관련 인력비, 서비스 지원 사업비의 증가를 들 수 있으며 175억 5천 만원이 증액되었음.
- 주요 감액사업은 종합복지관 기능보강(84.6%), 서울형 긴급복지지원(47.9%)으로 나타나고 있음.
  - 종합복지관 기능 보강은 종합복지관의 노후시설 증축·개보수, 장비보강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나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여 37억 8천만원 감액하였음.
  -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위기상황에 처하였으나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에게 신속한 지원을 통하여 긴급한 위기상황을 넘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 본 사업의 감액 사유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대상 중위소득 85% 이하는 2021년부터 돌봄SOS 예산으로 서비스 지원(1,000백만원 감소)을 하기 때문임.
- 신규사업으로는 지역맞춤형 영유아 조기개입체계 구축하기 사업이 시민참여예산(광역협치형)으로 800백만원 편성되었음.

### 3. 어르신복지과

- 어르신복지과는 초고령 시대에 대비한 어르신 맞춤형 복지실현을 목표로 하여 2020년 최종예산 2조 5,829억 7천 9백만원에서 12.3% 증액된 2조 8,961억 8천만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음.

#### 〈어르신복지과 주요 세부 사업 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2020 최종예산(A)	2021예산(B)	증감(B-A)	변화율
<input type="checkbox"/> 주요 증액사업(10% 이상)				
어르신 복지시설 설치 지원	16,311,000	18,502,420	2,191,420	13.4%
노인지원주택 운영	616,800	942,300	325,500	52.8%
기초연금 지급	(×1,932,024,077) 2,234,226,462	(×2,211,963,214) 2,533,272,626	(×279,939,137) 299,046,164	13.4%
망우리공원 웰컴센터 건립	100,000	7,242,000	7,142,000	7,142.0%
<input type="checkbox"/> 주요 감액사업(10% 이상)				
어르신데이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14,395,500	12,735,300	△1,660,200	△11.5%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어르신 지원사업	170,000	110,000	△60,000	△35.3%
서울재가관리사 운영	2,766,013	1,946,287	△819,726	△29.6%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시비)	4,201,944	3,451,816	△750,128	△17.9%
시립장사시설 화장로 유지보수	(×3,271,000) 6,542,000	(×2,897,000) 5,974,000	(×△374,000) △748,000	△11.4
<input type="checkbox"/> 신규사업				
퇴원노인의 일상생활복귀를 위한 케어 B&B(중간집) 시범운영 (시민참여)	0	445,000	445,000	100.0%



- 주요 증액사업은 국비매칭사업인 기초연금 사업(13.4%)의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임.
  - 기초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임.
  - 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가 되는 자로, 정부에서는 21년도부터 기준연금액 30만원의 적용대상을 소득하위 40%에서 소득하위 70%까지 크게 확대하였는데, 이러한 점 등이 예산 증액의 주요 사유가 되었음.
  - 또한 노인지원주택 운영사업 예산이 전년대비 3억 2,550만원(52.8%) 이 늘어난 9억 4,230만 원 편성된 것으로 나타남.
  - 노인지원주택 운영사업은 서울주택공사(SH)에서 시행하는 서울시 지원주택 운영사업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65세 이상 입주노인 중 독립적으로 거주하고 싶으나 일상생활에 제약에 있어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집행부에서는 사례관리 서비스제공기관을 선정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하게 됨.
  - 2020년도에는 동대문구와 강동구의 노인지원주택에 13명이 입주하였고, 2021년도 노인지원주택 공급일정에 따라 12개월분을 편성하였음.
- 주요 감액사업은 어르신 데이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사업 (11.5%),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어르신지원사업(35.3%) 으로 나타나고 있음.
  - 어르신데이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사업은 주야간 보호시설의 서비스 품질 강화를 위해 서울형 좋은돌봄인증제를 운영하는 것이 주된 내용임.

- 2021년도에는 데이케어센터 공사일정에 따라 사업비가 조정되면서 사업금액이 감액되었음.
- 또 다른 감액사업인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어르신 지원사업은 전년도까지 지원되던 재가어르신 간병서비스 사업이 종료된 것이 감액의 주요 원인이거나, 사업 전체에 대한 방향 점검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4. 인생이모작지원과

- 인생이모작지원과는 50+인프라 확충을 통한 50+지원기반 마련 및 어르신 일자리 발굴 활성화를 목표로 하여 2020년 최종예산 3,319억4천1백만원에서 8.9% 감액된 3,022억 6천7백만원의 예산안을 편성하였음.

##### 〈인생이모작지원과 주요 세부 사업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2020 최종예산(A)	2021예산(B)	증 감 (B-A)	변화율
<input type="checkbox"/> 주요 증액사업(10% 이상)				
보람일자리 사업	10,916,000	14,916,000	4,000,000	36.6%
50+재단 및 캠퍼스 운영	13,864,655	16,684,200	2,819,545	20.3%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사업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1,116,884) 1,595,548	(×1,298,708) 1,855,297	(×181,824) 259,749	16.3%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시 직속)	(×1,554,973) 4,782,452	(×1,661,478) 5,538,260	(×106,505) 755,808	15.8%
노인복지관 시설관리 및 확충	5,316,457	9,187,441	3,870,984	72.8%
<input type="checkbox"/> 주요 감액사업(10% 이상)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90,662,320) 179,962,703	(×73,884,947) 160,089,052	(×16,777,373) △19,873,651	△11.0%
50+센터 확충 및 운영	5,525,940	4,351,881	△1,174,059	△21.2%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 (고용노동부 공모)	(×2,352,000) 3,920,000	(×1,823,890) 3,039,817	(×528,110) △880,183	△22.5%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강화	11,025,481	9,849,616	△1,175,865	△10.7%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 지원	(×144,620) 389,240	(×145,370) 290,740	(×750) △98,500	△25.3%
50+캠퍼스 확충	13,588,442	1,045,000	△12,543,442	△92.3%
<input type="checkbox"/> 신규사업				
도심 속 초밀착 생활연구를 통한 할머니 창직가	0	700,000	700,000	100.0%

○ 인생이모작과의 주요 증액은 노인복지관 시설관리 및 확충사업 전년대비 38억 원(72.8%), 보람일자리 사업 전년대비 40억(36.6%)를 증액한 것임.

- 노인복지관 시설관리 및 확충사업에서는 시립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등의 사업은 45억 원에서 2억 7천만원으로 대폭 감소하였으나, 노원구, 강서구에 노인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해 각각 건축비(63억 원)와 토지매입비(25억 원)를 편성한 것이 주요한 증액사유임.

- 또한 보람일자리 사업의 경우 사회공헌일자리지원(공모) 사업에서 장애인 시설 등 서비스 인력을 확대하고 보람일자리 참여자의 활동기간을 연장시켜 증액편성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주요 감액은 50+캠퍼스 확충사업 전년대비 125억 4,344만원(92.3%),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시직속 포함) 전년대비 191억 1,784만원(10.3%)를 감액편성한 것임.

- 50+캠퍼스 확충사업은 50+ 동부캠퍼스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전년도 예산 가운데 사고이월 금액이 발생해 2021년도에는 예산의 일부만 편성된 것임

-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국비 매칭사업으로, 보건복지부 가내시에 따라 일자리 사업량을 조정하는 것이 가장 큰 사유임. 보건복지부에서는 2020년 76,000명이던 사업 대상자를 71,626명으로 전체의 5.8%인 4,374명으로 축소시켰음.

## 5. 장애인복지정책과

- 장애인복지정책과는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및 장애인 자립지원 확대, 장애인 취업지원 확대 등을 목표로 하여 2020년 최종예산 2,607억 1천만원에서 6.8% 증액된 2,785억 5천 2백만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음.

### 〈장애인복지정책과 주요 세부 사업 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2020 최종예산(A)	2021예산(B)	증감(B-A)	변화율
□ 주요 증액사업(10% 이상)				
장애인지원주택 운영	2,656,886	4,647,100	1,990,214	74.9%
탈시설 협치 추진	969,600	1,219,600	250,000	25.8%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100,000) 200,000	(×135,000) 270,000	(×35,000) 70,000	35.0%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운영	180,000	329,640	149,640	83.1%
어울림플라자(가칭) 건립 및 운영	0 *비예산 사업	1,521,230	1,521,230	100.0%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지원	(×1,220,065) 2,440,130	(×1,717,200) 3,434,400	(×497,135) 994,270	40.7%
장애인 일자리 지원-시간제 일자리	(×1,148,207) 2,487,782	(×1,694,094) 3,670,547	(×545,887) 1,182,765	47.5%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 일자리(시간제)	790,560	1,752,660	962,100	121.7%
장애인 일자리 지원-복지일자리	(×2,086,040) 4,519,754	(×2,475,198) 5,362,937	(×389,158) 843,183	18.7%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 일자리(복지)	401,360	800,280	398,920	99.4%
장애인 일자리 지원-일반형 일자리	(×6,854,000) 14,850,334	(×7,788,974) 16,876,117	(×934,974) 2,025,783	13.6%
장애인 일자리 지원-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329,478) 713,869	(×449,206) 973,282	(×119,728) 259,413	36.3%
발달장애인사서보조 지원사업	683,624	783,624	100,000	14.6%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615,750) 1,291,505	(×1,238,370) 2,476,746	(×622,620) 1,185,241	91.8%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454,723) 909,446	(×718,247) 1,436,494	(×263,524) 527,048	58.0%

구 분	2020 최종예산(A)	2021예산(B)	증감(B-A)	변화율
□ 주요 감액사업(10% 이상)				
서울시보조기기센터 운영	1,524,544	1,369,823	△154,721	△10.1%
장애인 인권증진 및 인식개선	348,000	108,000	△240,000	△69.0%
인권침해 장애인 쉼터운영(시비)	560,000	293,244	△266,756	△47.6%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운영	1,025,000	900,000	△125,000	△12.2%
장애인단체활동 및 행사지원	2,004,800	1,156,700	△848,100	△42.3%
□ 신규사업				
오뚜기(행주산성형) 장애인 일자리 창출	0	190,000	190,000	100.0%
장애인 가족공예 강사 양성과 경제적 자립활동 지원	0	500,000	500,000	100.0%

- 주요 증액사업은 장애인지원주택 운영사업으로 2021년 신규 주택 공급에 따라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운영비 예산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장애인지원주택 운영 사업은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안정적인 독립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 장애인에게 주거서비스를 결합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서비스란 지원주택 입주자 개인별 욕구에 따라 서비스 제공기관이 상시 또는 간헐적으로 제공하는 주거관리 및 생활관리 전반에 대한 서비스임.
  - 집행부에서는 '21년 장애인 지원주택 예산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2,656,886천원 대비 1,990,214천원 증액한 4,647,100천원을 편성하였음.
- 주요 감액사업은 장애인 인권증진 및 인식개선사업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홍보비 예산 삭감에 따른 것임.
  - 집행부에서는 '21년 장애인 인권증진 및 인식개선사업 예산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348,000천원 대비 240,000천원 감액한 108,000천원을 편성하였음.

## 6. 장애인자립지원과

- 장애인자립지원과는 장애인 자립지원 및 이동편의 증진으로 장애인자립기반 구축 등을 목표로 하여 2020년 최종예산 7,679억 2천 2백만원에서 6.8% 증액된 8,204억 1천 2백만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음.

### 〈장애인자립지원과 주요 세부 사업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2020 최종예산(A)	2021예산(B)	증 감 (B-A)	변화율
<b>□ 주요 증액사업(10% 이상)</b>				
장애인활동지원 사업-활동지원급여	(×184,120,373) 360,011,161	(×202,682,429) 396,750,503	(×18,562,056) 36,739,342	10.2%
장애인활동지원 사업-활동보조기산급여	(×764,871) 1,320,465	(×846,558) 1,452,656	(×81,687) 132,191	10.0%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2,470,126	3,206,661	736,535	29.8%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1,802,664) 6,239,016	(×4,800,000) 10,319,040	(×2,997,336) 4,080,024	65.4%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일람서비스 운영지원	(×476,966) 953,932	(×566,000) 1,132,000	(×89,034) 178,068	18.7%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1,708,979) 3,417,958	(×50,000,000) 10,000,000	(×3,291,021) 6,582,042	192.6%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보조)	(×65,151) 192,883	(×77,275) 257,583	(×12,124) 64,700	33.5%
사립 시대문 농아인 복지관 별관 건립	554,000	3,376,369	2,822,369	509.5%
<b>□ 주요 감액사업(10% 이상)</b>				
장애인체육시설 운영	6,716,800	3,776,258	△2,940,542	△43.8%
장애인활동지원 사업-활동지원운영	3,145,790	2,324,645	△821,145	△26.1%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	314,863	115,641	△199,222	△63.3%
여성장애인 흠험퍼 지원	1,815,988	1,634,389	△181,599	△10.0%
장애인복지카드 원스톱발급 지원	356,320	278,860	△77,460	△21.7%

구분	2020 최종예산(A)	2021예산(B)	증 감 ( B - A )	변 화 율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집수리) 사업	900,000	490,000	△410,000	△45.6%
시각장애인 전용 쉼터 조성 및 운영	400,000	94,497	△305,503	△76.4%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2,746,177	550,680	△2,195,497	△79.9%
장애인체육시설 기능보강	1,582,961	403,408	△1,179,553	△74.5%
구립강북장애인복지관 별관 신축 건립	664,934	552,467	△112,467	△16.9%
<b>□ 신규사업</b>				
이동식 휠체어경사로지원 사업	-	292,500	292,500	100.0%
중증장애인지저귀교환대설치	-	150,000	150,000	100.0%

- 주요 증액사업은 중증장애인연금 사업으로 노인 및 한부모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기준금액 완화에 따른 것임.
  - 중증장애인연금 사업은 만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게 최소한의 생활보장 및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하여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년 41,978명에서 '21년 54,991명으로 지원대상이 증가하였음.
  - 집행부에서는 '21년 중증장애인연금 예산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148,680,277천원 대비 9,393,045천원 증액한 158,073,322천원을 편성하였음.
- 주요 감액사업은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으로 기능보강 대상 시설 수 감소에 따른 것임.
  - 집행부에서는 '21년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예산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2,746,177천원 대비 2,195,497천원 감액한 550,680천원을 편성하였음.

## 7. 자활지원과

- 자활지원과는 노숙인 자활지원 강화를 위해 노숙인 자활지원 및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지원과 저소득시민 자활지원 등을 목표로 하여 2020년 최종예산 1,969억 8천 2만원에서 10.5% 감액된 1,762억 7천 4백만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음.

### 〈자활지원과 주요 세부 사업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2020 최종예산(A)	2021예산(B)	증 감 (B-A)	변 화 율
□ 주요 증액사업(10% 이상)				
노숙인 일자리 지원	10,291,109	11,973,394	1,682,285	16.3%
노숙인 주거안정 지원	2,760,252	3,225,098	464,846	16.8%
청년저축계좌	(×1,811,740) 2,657,238	(×3,399,000) 4,999,104	(×1,587,260) 2,341,866	88.1%
□ 주요 감액사업(10% 이상)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	3,683,854	2,477,907	△1,385,937	△35.9%
노숙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시비)	842,256	107,741	△734,515	△87.2%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기능보강	(×1,479,454) 2,995,498	(×102,810) 205,620	(×1,376,644) △2,789,878	△93.1%
자활근로사업 지원	(×72,837,592) 106,828,463	(×61,728,240) 90,534,748	(×11,109,352) △16,293,715	△15.3%
자활장려금	(×1,040,298) 1,675,806	(×863,244) 1,266,092	(×△177,054) △409,714	△24.4%
희망키움통장 II	(×4,164,577) 7,161,692	(×3,628,000) 6,123,600	(×△536,577) △1,038,092	△14.5%
내일키움통장	(×742,301) 1,088,717	(×611,000) 896,544	(×△131,301) △192,173	△17.7%
청년희망키움통장	(×1,766,002) 2,590,163	(×1,303,000) 1,934,064	(×463,002) △656,099	△25.3%



- 주요 증액사업은 청년저축계좌 사업으로 청년저축계좌 목표가구 증가('20년 1,368명→'21년 2,231명)에 따른 것임.
  - 청년저축계좌 사업은 일하는 주거·교육 급여 혹은 차상위 청년(만15세~만39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본인 저축액에 따라 장려금을 매칭 지원하는 저소득층 자산 형성 지원 사업임.
  - 집행부에서는 '21년 청년저축계좌 사업 예산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2,657,238천원 대비 2,341,866천원 증액한 4,999,104천원을 편성하였음.
- 주요 감액사업은 자활근로사업 지원으로 보건복지부 가내시액을 반영하여 감액한 것임.
  -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국고 보조사업으로, 재정 부담 비율은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로 구성되어 있음.
  - 집행부에서는 '21년 자활근로사업 예산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106,828,463천원 대비 16,293,715천원 감액한 90,534,748천원을 편성하였음.

## 나. 세부사업별 검토

### 1. 서울시복지재단 출연금 (예산서 123p.)

#### 1) 현황

○ 서울시복지재단(이하 '복지재단') 출연금은 전년 대비 12%인 44억 5천 7백 만원을 증액한 총 416억 9천 7백만원의 예산이 편성·제출 되었음.

- 총 416억 9천 7백만원 중 217억이 서울형 자산형성지원 사업의 매칭금액임.

#### 〈복지재단 주요 예산 증액 내역(출연금)〉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20년 예산	'21년 예산안	증감액	증액사유
1	서비스품질향상 위한 제도적 지원	201,920	677,658	475,738	· 현장평가 시설 수 증가 ('20년 57개소→'21년 358개소) · 현장평가 수당, 각종회의 수당 및 진행비 증가 · 평가전문위원 교육 전과정 실행 (모집, 기초, 심화1, 2, 모니터링)
2	서울형 인증제도의 확대	262,783	422,363	159,580	· 인증대상시설 증가 ('20년 100개소→'21년 200개소) · 갱신 시설 및 인증 도래 및 방문요양시설 인증 신규 추진에 따른 심사 관련 예산 증가
3	복지시설의 기능보강 지원	283,486	316,399	32,913	·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인상 반영 및 행정보조원 1명 반영
4	돌봄서비스 전달체계 지원	213,860	341,210	127,350	· 돌봄sos센터 사업 참여 25개 전 자치구 확대 · 당초 '20년 총 13개구 참여 계획 (6월까지 5개구, 7월부터 13개구)
5	서울형 자산형성사업 운영지원	17,768,819	22,704,898	4,936,079	· '20년 신규참가자 선발인원(4,500명) 1개월 매칭→12개월 매칭 및 '21년 신규참가자(3,300명) 선발 · 인트라넷 및 홈페이지 개편 · 사례관리기관 실무자 인건비 인상 반영
6	공공복지전달체계의 효율성 제고	187,622	267,055	79,433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관련 현장 모니터링 관련 비용 증액 등 사업 운영
7	서울금융복지상담 센터 운영	336,542	390,597	54,055	· '다시시작(ReStart) 지원' 사업 확대 · 지역센터 시설 노후화로 인한 단계적 물적 환경개선 실시, 3개 센터 우선 개선 진행

## 2) 주요쟁점

### ① 서울형 인증제도 사업

○ 서울형 인증제도 사업은 시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서울형 복지서비스를 강화를 목적으로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제4조」에 근거하여 좋은돌봄인증 품질향상지원, 좋은돌봄인증 전문위원양성, 좋은돌봄인증제 운영,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사업은 2017년부터 도입되었으며,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주체인 법인 운영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인증을 통해 사회복지분야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성을 제고하고자 신청제로 추진하고 있음.

#### 〈서울형 인증제도 사업 추진현황〉

구 분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	서울형 어르신돌봄시설 인증						
목 적	사회복지시설 운영 주체의 공적역할과 사회적 책무성 강화	어르신 돌봄서비스 수준 제고 및 서울시민의 복지체감도 증진						
대 상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어르신돌봄시설(장기요양기관)						
체 계	인증 사전지원, 인증 심사, 인증 사후관리 추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3%;">인증 사전지원</th> <th style="width: 33%;">인증 심사</th> <th style="width: 33%;">인증 사후관리</th> </tr> </thead> <tbody> <tr> <td style="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안내서 및 매뉴얼 제작 및 보급</li> <li>■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소규모 및 1:1)</li> <li>■ 사업설명회 개최</li> <li>■ 인증 홈페이지 운영</li> </ul> </td> <td style="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증지표 개선 (지표개선위원회, 공청회)</li> <li>■ 인증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li> <li>■ 인증심사 모니터링 및 인증만족도조사 실시</li> <li>■ 심의위원회 및 전문가문단 구성 및 운영(시설)</li> </ul> </td> <td style="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및 소방모니터링, 이용자만족도조사, 관계자 간담회, 안전점검매뉴얼 보급</li> </ul> </li> <li>■ 법인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니터링, 간담회, 교육</li> </ul> </li> </ul> </td> </tr> </tbody> </table>		인증 사전지원	인증 심사	인증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안내서 및 매뉴얼 제작 및 보급</li> <li>■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소규모 및 1:1)</li> <li>■ 사업설명회 개최</li> <li>■ 인증 홈페이지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증지표 개선 (지표개선위원회, 공청회)</li> <li>■ 인증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li> <li>■ 인증심사 모니터링 및 인증만족도조사 실시</li> <li>■ 심의위원회 및 전문가문단 구성 및 운영(시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및 소방모니터링, 이용자만족도조사, 관계자 간담회, 안전점검매뉴얼 보급</li> </ul> </li> <li>■ 법인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니터링, 간담회, 교육</li> </ul> </li> </ul>
인증 사전지원	인증 심사	인증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안내서 및 매뉴얼 제작 및 보급</li> <li>■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소규모 및 1:1)</li> <li>■ 사업설명회 개최</li> <li>■ 인증 홈페이지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증지표 개선 (지표개선위원회, 공청회)</li> <li>■ 인증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li> <li>■ 인증심사 모니터링 및 인증만족도조사 실시</li> <li>■ 심의위원회 및 전문가문단 구성 및 운영(시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및 소방모니터링, 이용자만족도조사, 관계자 간담회, 안전점검매뉴얼 보급</li> </ul> </li> <li>■ 법인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니터링, 간담회, 교육</li> </ul> </li> </ul>						
주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인증 : 5년마다 심사</li> <li>▪ 모니터링 : 5년 중 1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인증 : 3년마다 심사</li> <li>▪ 모니터링 : 3년 중 1회~2회</li> </ul>						

-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인 증은 운영법인의 공공성, 투명성, 전문성을 인 증 하는 제도로써 일부 운영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기부금 및 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복지시설에 대한 신뢰를 시민에게 주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임.
- 그러나 2017~2020년간 인 증 신청 시설 수는 평균 6.5개소이며, 인 증 시설 수는 3.5개로 실적이 저조함. '20년 본 사업의 인 증심사 추진목표는 15개이나, 인 증법인은 4개소로 목표치의 26.7% 밖에 미치지 못하여 사 업의 실효성이 낮다고 할 수 있음.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 증 실적〉

(단위: 개소)

연도	인 증 신청	현장심사	인 증 법인	비고
2017	10	8	6	
2018	6	4	2	
2019	4	4	2	
2020	6	6	4	

- 또한 본 사업은 3년(2017~2019년) 연속 사업 불용률이 높게 나타난 바 있음. 20년 집행률은 94%로 높아졌으나, 이는 전년 대비 사업 예산 규모 축소(17,925천원)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음. 21년 예산은 28,232천 원으로 9,192천원 증액되었음, 그러나 지난 3년간의 성과를 살펴볼 때 사 업유지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최근 3년간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사업 집행률 및 미비 사유〉

연도	예산액 (천원)	집행액 (천원)	집행률 (%)	집행률 80%이하 사유
2017	38,950	21,607	55.5%	- 인증심사법인 수 감소(53.3%) 지출감소
2018	36,965	12,189	33%	- '17년 시범사업 이후 서울시 법인인증 사업계획(40개소) 통보 및 서울시 협조 요청에 따라 30개소 법인인증 심사 예산 수립하였음 - 실제 신청법인 수가 6개소로 심사소요 예산집행이 대폭 축소되어 집행 됨
2019	41,620	21,106	51%	- 서울시와 사업 설명회 등 공동 추진 통한 예산절감(장소대관 등) - 서울시 계획에 따라 인증법인 20개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신청법인 6개소로 미집행 금액 발생
2020. 10월 30일 기준	19,040	17,874	94%	- 전년 대비 예산이 감액(17,925천원) 되어 상대적으로 예산 집행률이 상승함

- 인증은 기관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기관의 역량강화 및 지속적인 서비스 질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인들에게 인증을 강제할 근거가 없으며 법적 강제성을 강구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 또한 시설이 법인인증 지표 및 인증 실시과정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사업의 효과를 진작하기 위한 위탁체 선정심사 가산점, 수탁운영 시 법인전입금 폐지 등과 같은 유도장치들이 실질적인 효과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 사업추진 과정에서 학계전문가, 자치구, 현장 실무자와의 소통을 강화해 인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인증 지표를 현장에 맞게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함. 또한 법인의 인증을 받는 법인 및 시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②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 사업

- 서울형 사회복지시설평가는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평가를 실시하고 시설운영과 서비스 질 제고를 통해 이용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세부사업으로 평가수행, 지표 개발 및 평가사후 컨설팅이 있으며, 3년간 추진 실적은 다음의 표와 같음.

〈사회복지시설 평가 최근 3년간 추진 실적〉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정량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형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관 평가 : 97개소</li> <li>- 노인복지관 평가 : 35개소</li> <li>-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평가 : 121개소</li> </ul> </li> <li>• 서울형 평가전문위원 양성 : 76명</li> <li>• 서울형 평가사후 컨설팅 : 21개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형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 : 121개소</li> </ul> </li> <li>• 서울형 평가전문위원 양성 : 24명</li> <li>• 서울형 평가사후 컨설팅 : 29개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형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종합복지관평가 : 46개소</li> <li>- 노숙인이용시설 평가 : 11개소</li> </ul> </li> <li>• 서울형평가전문위원 양성 : 69명</li> <li>• 서울형 평가사후컨설팅 : 25개소</li> </ul>
정성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형 평가 수행과정에서 현장과 소통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평가서 작성을 통한 자발적인 자체 점검 및 진단 유도</li> <li>- 평가간담회를 통한 현장소통 강화</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형 평가의 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시스템 도입으로 투명성 제고</li> <li>- 평가체계 개선 공동연구를 통한 현장소통 강화로 신뢰도 제고</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형 평가의 전문성 및 수용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전문위원제도를 통한 공정성 및 전문성 제고</li> <li>- 평가지표개발 및 현장평가 시 현장참여 및 소통강화로 평가의 수용성 강화</li> </ul> </li> </ul>

- 동 사업은 시설 평가 수행 시 ‘시설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외부 조사 용역 전문기관을 통해 방문 또는 전화로 실시하고 있음. 본 사항은 현장평가위원 교육 시 숙지하도록 하여 실시 할 수 있는 사항이며, 현장평가위원이 자연스럽게 이용자를 관찰 할 수 있는 평가의 한 방법이 되기도 함. 외부 용역에 따른 추가 예산을 투입하기 보다는 현장평가위원을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사회복지시설 평가시스템 상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탑재하는 것이 필요함.

- 평가 사후관리 컨설팅은 평가수행과 연속선상에 있는 사업으로 평가의 중요한 환류체계라고 볼 수 있음. 그러므로 컨설팅 대상 선정 및 내용은 차기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임. 최근 3년간의 사업실적을 살펴보면 매년 평균 21개소 정도만이 컨설팅에 참여하고 있는데, 평가 대상 시설 수가 상이함에도 일정 개소수 만을 컨설팅 하고 있는 것은 평가→사후관리→컨설팅으로 이어지는 환류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최근 3년간 사회복지시설 평가 품질향상지원 컨설팅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컨설팅 대상		컨설팅 신청기관	신청율
	컨설팅 대상시설명	컨설팅 대상시설 수		
2018년	장애인복지관	45	15	33.3
	노숙인 시설	49	15	30.6
	<b>합계</b>	<b>94</b>	<b>30</b>	<b>31.9</b>
2019년	사회복지관	97	9	9.3
	노인복지관	35	1	2.9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21	19	15.7
	<b>합계</b>	<b>253</b>	<b>29</b>	<b>11.5</b>
2020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18	25	21.2
<b>총계</b>		<b>465</b>	<b>84</b>	<b>21.5</b>

- 또한 매해 입찰에 따라 컨설팅을 외부 용역에 의해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본 사업의 추진방향인 개별시설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달성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외부업체에 의한 일회성 사업을 실시하기 보다는, 사업의 안정화를 위한 구조를 마련하여, 컨설팅 대상 선정 및 사업 내용에 대한 누적관리 실태를 중심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성과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것임.

### 3) 검토의견

- 서울시복지재단의 2021년 예산은 전년도 대비 44억 5천 7백만원 증가한 416억 9천 7백만원으로 12% 증가하였음.
- 서울시복지재단에서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서울시 복지분야 공공서비스의 핵심을 이루고 있음.
- 특히 사회복지 법인인증 사업의 경우 사업 시행 4년이 경과 하였으나 여전히 인증심사 신청 건수가 저조하며, 사업 전체의 집행률도 낮은 측면이 있음. 또한 사회복지시설 평가 사업의 경우 이용자만족도 및 컨설팅 사업의 용역 사업 수행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이러한 점들을 반영해 사업 확대 및 전반에 대한 방향 재점검이 필요함.
- 재단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추진을 위해 전반적인 시행사업에 대한 재 점검이 필요하며, 금번에 증액 요청한 출연금에 대하여서도 재단 사업의 통·폐합 등을 실시해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업 조정이 필요함.



## 2.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출연금 (예산서 115p.)

### 1) 현황

- 사회서비스원은 그간 사회서비스가 민간 위주로 운영되며 과도한 경쟁구조로 인해 발생한 저임금 근로, 고용 불안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이 사회서비스를 직접 운영하여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임.
-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원 1차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로 선정되어 2019년부터 경기도, 경상남도, 대구와 함께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현재 본부 외 종합재가센터 12개소(성동, 은평, 강서, 노원, 마포, 송파, 영등포, 양천, 중랑, 도봉, 강동, 서대문)와 국공립어린이집 6개소(노원, 서대문, 중랑, 은평, 영등포, 강동)를 운영하고 있음.

#### 〈표〉 2020년도 사회서비스원 신규개소 시설

- 종합재가센터 8개소 : 마포 (20.1), 송파, 영등포, 양천 (20.9), 중랑·도봉·강동·서대문(20.11)
- 국공립어린이집 6개소 : 노원(20.3), 서대문(20.5), 중랑·은평(20.7), 영등포·강동(20.9),

- 2020년도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289억 9,108만원을 편성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신규인력 채용기간이 단축되면서 2차 추경(20.5월), 4차 추경(20.9월) 등 총 2번에 걸쳐 65억 원을 감액한 바 있음.

〈표〉 2020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추경내역

(단위: 백만원)

제2차 서울시 추경('20.5월) 내역				
통계목	기정예산 (A)	증감액 (B)	추경예산 (A+B)	증감내역
총계	(×951) 28,991	(×-) △3,500	(×951) 25,491	
사무관리비	(×-) 140	(×-) -	(×-) 140	
출연금	(×951) 28,851	(×-) △3,500	(×951) 25,3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재가센터 신규인력 채용기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불용예상액 감액</li> <li>- 기존센터(278명) : 12개월분→6개월분</li> <li>- 신규센터(207명) : 6개월분→4.5개월분</li> </ul>
제4차 서울시 추경('20.9월) 내역				
통계목	기정예산 (A)	증감액 (B)	추경예산 (A+B)	증감내역
총계	(×951) 25,491	(×△20) △3,047	(×931) 22,444	
사무관리비	(×-) 140	(×-) -	(×-) 140	
출연금	(×951) 25,351	(×△20) △3,047	(×931) 22,3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비 변경(감액) 내시에 따른 국비감액(△20백만원) :</li> <li>◦ 코로나19로 신규 채용인원 감소 등으로 인한 인건비 불용예상액 감액(△2,827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부(12명) 미채용분 감액</li> <li>- 기존재가센터(238명) 미채용분 감액</li> </ul> </li> <li>◦ 종합재가센터 단기특화형 미설치로 감액(△200백만원)</li> </ul>

- 2021년도 사회서비스원 출연금은 201억 2천만원으로 2020년 추경 후 최종예산인 224억 4,388만원에 비해 10% 감액 편성됨.
- 당초 복지정책실의 계획에 따르면 사회서비스원은 2021년도에는 산하시설 16개소를 새로 개관할 예정이었으나, 집행부에서 제출한 21년 예산안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추가확충(송파위례), 종합재가센터는 기존 12개소만 운영하되, 양천과 송파 2개소를 확대형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임.

## 2) 주요 쟁점

### ① 사업 운영의 측면

- 현재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서는 국·공립 사회복지 시설 가운데 종합재가센터는 직접 운영, 국·공립 어린이집은 수탁운영의 형태로 운영하며 시민들에게 직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유형 및 사업내용

유형	사업내용	해당 자치구
기본형	장기요양+긴급돌봄	은평, 강서, 송파, 영등포, 양천, 중랑, 도봉, 강동, 서대문 (9)
통원형	장기요양+긴급돌봄+주야간보호	마포 (1)
확대형	장기요양+긴급돌봄+장애인활동지원	노원 (1) ※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
간호특화	장기요양+긴급돌봄+방문간호+장애인활동지원	성동 (1)
단독시설	주야간보호(강서구립 든든데이케어센터)	강서 (1)

〈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어린이집 운영현황

어린이집명	개원시기	정 원	주 소	취약보육	
개원	노원든든	'20.3월	45	노원구 초안산로2라길 26 월계센트럴 아이파크 내	야간연장, 장애통합
	서대문든든	'20.5월	71	서대문구 거북골로100 래미안루센티아아파트 내	야간연장, 시지보육
	중랑든든 (새우개하나)	'20.7월	68	중랑구 용마산로 139 다길 17	야간연장, 장애통합
	은평든든 (응암행복)	'20.7월	98	은평구 은평로220 녹번이편한세상캐슬아파트 내	야간연장, 장애통합
	영등포든든	'20.9월	65	영등포구 대림로35가길 9	야간연장, 다문화이동
	강동든든	'20.9월	95	강동구 아리수로93가길 110	야간연장, 장애통합

- 사회서비스원은 민간과는 다르게 정부의 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만큼 민간에서 기피하는 최종증장애인, 다인서비스, 단시간 다회서비스 대상자들을 연계하겠다고 하였으나, 20년 9월 기준 민간기피 사례의 실적은 전체 사례의 10.8%로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민간기피사례 실적

(기준 : '19.7월~'20.9월, 종결포함)

서비스명 센터명	이용자 수(명)					서비스 횟수(회)	서비스 시간(h)	
	합계	방문 요양	장애인 활동지원	긴급돌봄 (노인)	긴급돌봄 (장애인)			
민간기피사례 비율 (A/B)	10.8%	16.7%	24.4%	7.5%	4.5%			
종합재가센터 사업실적(B)	786	138	82	544	22			
민간 기피	계(A)	85	23	20	41	1	5,138	23,292
	성동	16	2	13	0	1	1,510	4,500
	은평	20	2	-	18	-	481	1,463
	강서	19	7	-	12	-	1,327	3,746
	노원	14	5	7	2	0	1,553	12,691
	마포	16	7	-	9	-	653	2,113

-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서도 지역 내 민간기관과의 차별을 위해 민간에서 기피하는 사례들을 적극 유치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지역 내 기관과의 협의와 소통을 통해 민간기피사례 의뢰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사회서비스원에서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② 예산안의 적정성

- 사회서비스원의 재무건전성 문제는 설립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로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원 계획안에 따르면 국비 및 지방비로 지원하는 분야는 중앙지원단과 지방사회서비스원의 본부지원인력과 사업비에 한정하고, 직영 및 위탁시설의 서비스 운영 및 인건비 지급은 정부의 추가지원 없이 기존의 수가나 보조금에 기초하여 실시할 계획이었음.<sup>1)</sup>
- 2021년 제출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예산안에 따르면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전체 수입 가운데 17.4%인 60억 5,057만원을 영업수입으로 예상하고 있음.
- 그러나,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2019년 결산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사업수입으로 세운 예산이 9억 5,110만원인데 비해 결산 시 실제 발생한 수입은 2억 8,654만원으로, 당초 계획한 만큼의 수입금액의 30.1%만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1) 한국개발연구원(2019),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사업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표〉 2021년도 사회서비스원 예산(안)

(단위:천원)

세 입			세 출		
구 분		예 산 안	구 분		예 산 안
계		34,733,091	계		34,733,091
영업수입 (17.4%)	종합재가	2,440,530	인건비 (72%)	본부	2,479,950
	장기요양	1,331,681		소속기관	21,430,655
	주야간	644,258		성과급	988,000
	어린이집	1,634,098		계	24,898,605
	계	6,050,567			
출연금 (58%)	계	20,120,105	운영비 (6.1%)	본부	2,168,760
보조금 (7.5%)	종합재가	16,000	정책사업비 (21%)	종합재가센터운영	3,942,378
	국공립시설(어린이집)	2,510,879		국공립시설운영	1,760,538
	국공립시설(장기요양)	67,419		민간서비스 품질관리 등	1,662,810
	계	2,594,298		계	7,365,726
기타수입 (0.1%)	이자, 기타 등	34,621	예비비 (0.9%)		300,000
잉여금 (17%)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	985,000			
	불용예상치(불급예비비 등)	4,948,500			
	계	5,933,500			

- 영업수입이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점, 2019년도 결산을 통해 당초 세운 세입예산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낮은 수입을 달성한 것 등 사회서비스원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문제는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바 있음.
- 또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여타 지자체의 사회서비스원과 다르게 직접 돌봄서비스제공자인 영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을 정규직 월급제로 고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세출예산에서 인건비의 비중이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음.

- 현재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직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장기요양보험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수가체계가 개선되지 않는 이상 사업 수입은 일정정도 이상 늘어날 수 없는 구조로 인건비 지출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 따라서, 사업수익으로 충당되지 않는 사회서비스원의 추가재정소요는 시의 출연금으로 보전해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됨. 과다한 출연금의 지출은 시에도 재정적 부담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스마트비대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음. 이는 종합재가센터 서비스 이용자(노인 및 장애인)를 대상으로 건강관리를 위한 원격 의료기기를 제공해 상시 모니터링 및 긴급 의료연계를 하겠다는 계획임.

〈표〉 사회서비스원 2021년 비대면 스마트케어사업 추진계획

(단위:천원, VAT 포함)

구분	산출내역		금액	비고
스마트 케어	합계		200,000	
	항목별 도입비용	환자용 장비 70세트	115,500	원격의료 게이트웨이(혈압계 포함) 혈당계 셋, QR 카드
		간호사용 장비 3 세트	15,000	PT/INR, 콜레스테롤, 체온계, SpO2, HbA1c, 폐활량계 및 이동형 가방
		의료진 및 관리자용 프로그램	25,000	의료진 및 관리자 접속 웹 시스템
		디자인 및 커스터마이징	34,500	서울시 사회 서비스원 디자인 및 커스터마이징 작업
		관리자 원격의료장비 2 세트	10,000	관리자용 PC 및 도구 등
		프로그램 활용 교육(이용자)		무료
		프로그램 활용 교육(종사자)		무료

- 사회서비스원의 산출 예산을 보면 환자용 장비 70세트를 구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종합재가센터의 이용자들이 상시이용자가 아닌 만큼 장비관리에 도 어려움이 예상되며,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원에서 원격관리를 통해 이용자들의 건강을 관리하겠다는 사업 계획이 적정한 것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3) 검토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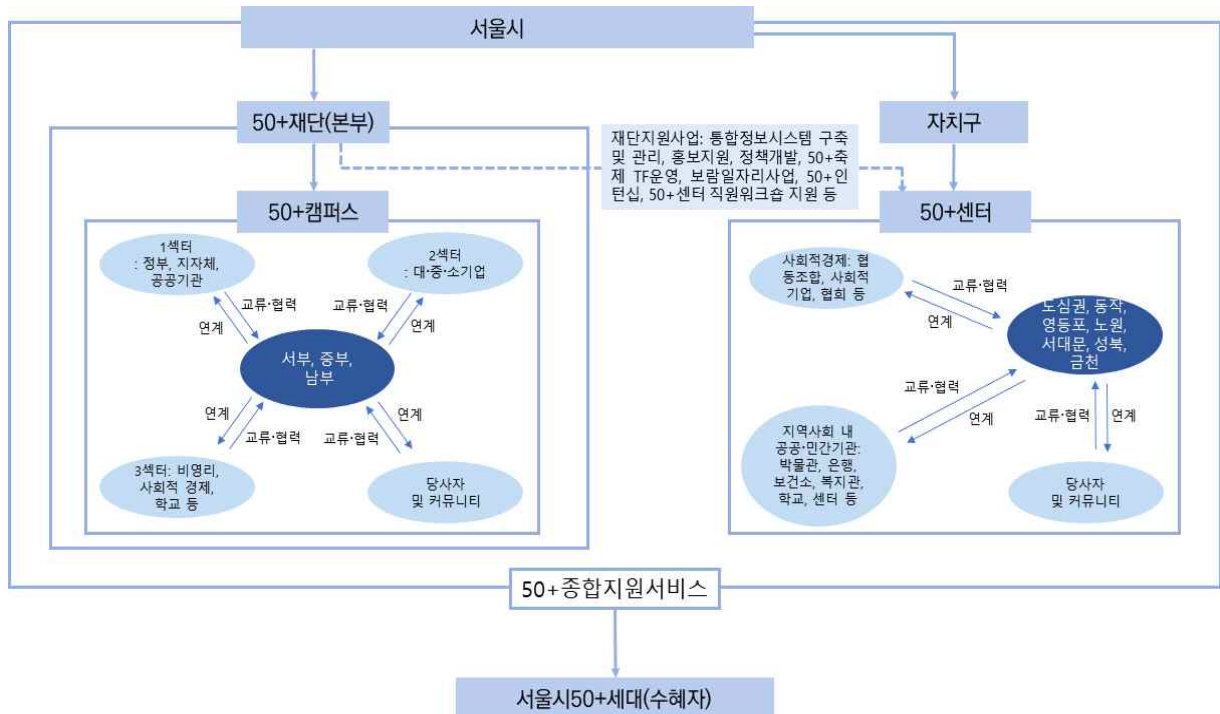
- 사회서비스원은 공공에서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 종사자에게는 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서비스 질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음.
- 특히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종사자 전체를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생활임금을 적용해 민간 최저임금 대비 21.8% 높은 급여 수준을 제공하는 등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정규직 월급제로 채용되어 있는 직접 서비스제공 종사자들의 직접서비스 제공 시간이 짧은 것도 사업수익이 낮은 하나의 사유로 지적할 수 있는 만큼, 본부 차원에서 이용자 확보와 매칭을 통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임.
- 또한, 현재는 사회서비스원의 산하 시설이 확대될수록 종사자 인건비 보전 등에 출연금이 더욱 투입되는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음. 집행부와 재단 차원에서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수입구조 개선을 위한 장기적 접근이 필요함.



### 3. 50+재단 및 캠퍼스 운영 (예산서 343p.)

#### 1) 현황

- 50+재단은 서울시 장년층의 은퇴 전후 새로운 인생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사회참여활동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 50+재단은 본부인 50+ 재단, 50+ 캠퍼스, 50+ 센터(시립1, 구립6)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은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며 서울시의 50플러스 정책을 주관하고 있음.



[그림] 서울시 50+ 전달체계

- 집행부에서는 전년 대비 28억 1,954만원이 증액한 166억 8,020만원을 50플러스 재단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음.

- 출연금 증액의 주요한 사유는 북부캠퍼스가 새롭게 개관하면서 운영을 위한 사업이 반영된 것임. 또한, 동남캠퍼스가 개소예정임에 따라 증원인력에 대한 급여를 예비비에 반영한 것임.

〈표〉 50+재단 주요예산 증액 내역(출연금)

(단위 : 천원)

연	세부사업명		'20년 예산	'21년 예산안	증액	증감율	증액사유
1	50+일모텔 개발 및 확산	소계	709,465	957,741	248,276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리 사업 중요성 강화 및 정책 환경 변화(전직서비스 의무화 시행)에 따른 수요증대 대응</li> <li>- 전직지원 교육, 적합일자리 교육 및 연계 및 인턴십 참여자 규모 1,300명→1,600명 증가 예산 반영</li> </ul>
		경력전환 및 취업지원	709,465	957,741	248,276	35%	
2	현장공감형 50플러스 캠퍼스 사업활성화	소계	2,786,772	4,357,420	1,570,648	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부캠퍼스 68개 과정 1,200명 대상 교육과정 및 상담센터 운영 예산 반영</li> <li>- 북부캠퍼스 커뮤니티 100여개 지원 예산 반영</li> <li>- 북부캠퍼스 시설 운영을 위한 관리비 및 공간 기반 기획 사업 운영 예산 반영</li> </ul>
		50+세대 생애 전환 교육 및 상담 제공	1,025,660	1,427,245	401,585	39%	
		당사자 주도형 활동 플랫폼 강화	259,099	347,168	88,069	34%	
		고객 지향 50+캠퍼스 공간 활성화	1,502,013	2,583,007	1,080,994	72%	
3	인건비	소계	5,144,073	7,209,155	2,065,082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건비 인상율(2.3%) 적용</li> <li>- 증원인력('20.8월) 25명 인건비 반영</li> </ul>
		인건비	5,144,073	7,209,155	2,065,082	40%	
4	운영비	소계	352,731	968,616	615,885	1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원인력('20.8월) 25명 사회보험료 등 복리후생비 등 연간 소요액 반영</li> </ul>
		운영비	352,731	968,616	615,882	174%	

## 2) 주요쟁점

### ① 50+재단 정책연구사업

- 50+재단은 서울시 장년층의 은퇴 전후 새로운 인생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사회참여활동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 50+재단의 가장 큰 특성은 서울시에 있는 특정 나이 대(만 50세~ 64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임. 특정 나이대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사업과 연구를 추진해 이들의 욕구를 반영하고자 하고 있음.
- 그러나 2020년 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내용 등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 내용이 일자리정책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경제적 욕구는 50+세대의 욕구 중 일부이기는 하나, 50+세대에는 경제적 욕구 외에도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사회참여 등 다양한 욕구가 존재하고 있음.
- 재단의 사업과 연구가 전반적으로 재단 참여 대상자의 범위와 사업방향이 일자리 정책에 치우쳐 있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재단 운영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표〉 2020년 50플러스 재단 정책연구과제 목록

구분	연구과제	비고
1	<p style="text-align: center;"><b>서울시 중장년 1인 가구 실태 및 지원정책</b></p> <p>-서울시 중장년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캠퍼스 이용객을 중심으로 50+세대 1인가구의 특성을 분석하고, 캠퍼스 이용 경험이 없는 대상들의 인터뷰를 통해 향후 서울시50플러스재단 지원 방향 도출</p>	기본 과제 9건
2	<p style="text-align: center;"><b>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그린 뉴딜 50+일자리정책연구</b></p> <p>-그린 뉴딜 일자리의 개념 및 영역을 문헌 분석을 통해 구명하고 FGI를 실시하여 서울시 50+세대가 그린 뉴딜 일자리에 진입할 때 요구되는 사항 도출</p>	
3	<p style="text-align: center;"><b>50+정책 협력 네트워크 구축 연구</b></p> <p>-50+정책 비전과 핵심가치를 재설정하고 50+정책 전달체계 고도화를 위한 방향성 수립 및 실행과제 제안</p>	

구분	연구과제	비고
4	<p style="text-align: center;"><b>서울시50플러스센터 운영 매뉴얼 개발</b></p> <p>-서울시50플러스센터별로 상이했던 사업구분과 실적 기준, 업무운영방식을 통일하고 체계화하는 발판 마련</p>	
5	<p style="text-align: center;"><b>서울시 50+세대 실태조사-심층 분석 보고서</b></p> <p>-2019년 연구과제였던 「서울시50+세대 실태조사: 직업이력 및 경제활동」 데이터를 이용해 정책적 관심집단과 주제별 심층 분석을 실시하여 50+정책대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정책적 시사점 도출</p>	
6	<p style="text-align: center;"><b>50+통계 분석</b></p> <p>-국내외 통계데이터를 이용하여 50+인구와 고용, 건강과 복지, 여가와 문화, 가족 및 사회활동으로 분석하는 통계 백서 시리즈</p>	
7	<p style="text-align: center;"><b>일·활동 온라인 플랫폼 수요 조사 연구</b></p> <p>-50+일·활동 온라인 플랫폼 수요 조사를 통한 일·활동 온라인 플랫폼 개발 방향성 탐색</p>	
8	<p style="text-align: center;"><b>서울시50플러스 북부캠퍼스 운영을 위한 지역수요 및 자원조사</b></p> <p>-50+세대 필요 교육, 일자리 수요, 사회참여활동 수요 조사 및 분석. 서울시50플러스 북부캠퍼스 운영방향 수립 및 기획운영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p>	
9	<p style="text-align: center;"><b>서울시 산업거점의 특성과 50+세대 일자리 연계방향</b></p> <p>-서울시 산업거점의 특성을 바탕으로 50플러스세대의 진입가능한 일자리 유형과 규모 등을 분석함으로써 재단의 일자리 사업과의 연계 방향 도출</p>	
10	<p style="text-align: center;"><b>(수시과제1) 중앙 및 지방의 50+정책 현황분석</b></p> <p>-중앙 및 지방정부의 50+관련 정책 최신경향과 현황을 파악하여 서울시50+정책 확산의 현황을 확인하고 추후 재단의 50+정책 및 발전방향 모색에 활용하고자 함</p>	수시 과제 3건
11	<p style="text-align: center;"><b>(수시과제2) 2019년 상담사업 성과분석</b></p> <p>-2019년 캠퍼스 상담센터 사업 분석, 성과 도출 (‘2018년 재단 사업 성과 분석’ 연구과제 상담편 후속 연구)</p>	
12	<p style="text-align: center;"><b>(수시과제3) 보람일자리 세부사업 평가지표 개발</b></p> <p>-보람일자리 세부사업별 성과측정이 가능한 평가지표를 개발</p>	

② 사업대상의 명확화에 대한 고민 필요

- 50+재단의 사업대상은 만 50세~만 64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아래 표와 같이 현재 재단에는 65세 이상 참여자도 나타나고 있음.

〈표〉 50플러스 재단 사업별 65세 이상 참여자 현황

(단위 : 명, %)

연번	연도	사업명	전체 참여자 수	65세 이상 참여자 수	전체대비 65세 이상 비율(%)		
					합계	남	여
1	2016	서울시 보람일자리	472	0	-	-	-
2	2017		553	38	6.9%	4.7%	2.2%
3	2018		825	86	10.4%	8.1%	2.3%
4	2019	서울50+(뉴딜)인턴십	174	9	5.2%	5.2%	0%
5	2019	서울시 보람일자리	806	117	14.5%	10.4%	4.1%
6	2020	서울50+(뉴딜)인턴십	314	25	8%	6.4%	1.6%
7	2020	서울시 보람일자리	1,010	168	16.6%	11.3%	5.3%

〈표〉 각 50+ 캠퍼스 프로그램 별 65세 이상 수강생 현황

(단위 : 명, %)

연번	연도	사업명	전체 참여자 수	65세 이상 참여자 수	전체대비 65세 이상 비율(%)		
					합계	남	여
1	2018년도	서부·중부·남부 캠퍼스 교육과정	8,715	1,995	15.7%	6.5%	9.2%
2	2019년도	서부·중부·남부 캠퍼스 교육과정	16,394	1,931	16.6%	7.1%	9.5%
3	2020년도	서부·중부·남부 캠퍼스 교육과정	7,463	864	11.6%	4.0%	7.6%
합계			31,758	4,790	15.1%	6.2%	8.9%

- 65세 이상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많은 서울시민의 참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도 존재하나, 50플러스 재단의 정체성을 고려하였을 때에는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sup>2)</sup>
- 50플러스 외의 세대의 참여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50플러스 재단에서 설계한 프로그램이 대상으로 하는 50플러스 세대의 욕구를 반영하여 설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더욱이 65세 이상 이용자들은 지역 내 시니어 클럽,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기존 기관을 통해서도 충분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재단의 본래 사업대상인 50플러스 세대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설계가 필요하다 하겠음.

### 3) 검토의견

- 201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신중년의 안정적 노후 정착 지원을 위한 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신중년<sup>3)</sup>층은 거주지역이나 가구 유형, 교육수준, 경력, 취업상태, 소득 수준에서 큰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신중년 집단 내부의 생활상이나 가치관도 매우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정부에서는 신중년 현상을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나 사회보장제도의 결함 또는 미성숙으로 인해 생긴 독특한 현상으로 보며, 특히 고용정책이나 사회보장 정책을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50플러스 재단의 사업 성격을 살펴보면 연구, 교육, 일자리 사업 전반에 걸쳐 이용 대상자의 연령대와 사업성격이 일자리에 치우쳐 접근하고 있는 측면이 있음.

2)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2항에 따르면 시장은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대상 연령을 제2조제1호에 따른 장년층 이외로 할 수 있으나, 조례의 목적에서 장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50플러스 재단의 주된 사업 대상은 장년층(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됨.

3) '신중년'은 2017년 8월 정부에서 5060세대를 '신중년'으로 명명하였으며 이들을 50~69세로 정의한바 있다. 50플러스 재단의 장년층은 50~65세로 차이가 존재하긴 하나 본 검토보고서에서는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함.

- 2018년 한국능률협회를 통해 실시한 50플러스재단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보고서에 따르면 유사기관 사업과의 차별성이 부족하며, 전략 수립 및 실행력 부족으로 재단 성과향상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재단은 2020년 북부캠퍼스를 개관함에 이어 동남캠퍼스도 개원할 예정에 있음. 그러나 재단의 정체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적인 재단의 확대는 지양해야 할 것임. 이미 개관한 캠퍼스의 운영에 있어서는 지역적 특색을 반영해 고유성과 독창성을 살리되, 이러한 특성이 다시 본부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울시 50+정책사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사업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음.
- 50플러스재단은 서울시의 50플러스 세대(50~64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50플러스 세대의 욕구가 일자리 등 경제적 욕구에 치우쳐 있다고는 볼 수 없는 만큼, 50플러스 세대의 다양한 욕구를 발굴해 이를 다시 연구와 사업 내용, 나아가서 서울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4.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예산서 73p.)

##### 1) 사업현황

- 생활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서울시의 생활여건 등을 반영한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최저생계 보장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전년 대비 77억 3백만원 감액된 122억 3천 1백만원이 편성됨.
- 본 사업은 2013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중앙정부의 법정지원 기준에서 발생하는 상대적 불이익과 이로 인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의 경제적 수준을 반영하여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급여 지급 금액을 현실화한 제도로 지원내용으로는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가 있음.

#### 〈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사항〉

구 분	개 선	내 용
'20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중증 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0.1월) - 만 75세 이상 노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8월)
'21년	소득기준 완화	기준 중위소득 45%('21.1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노인과 한부모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1.1월)
'22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그 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2.1월 예정)



- 하지만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집행현황을 보면 2018년과 비교 하였을 때 2019~2020년(불용추정치)도 2년 연속 불용률이 평균 30.9%로 현저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완화 사항으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폐지 기준을 추가한 것과 연결 지을 수 있음.
- 본 사업의 불용 사유는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완화추세에 따라 이를 보완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역할이 축소되어 대상자가 감소한 것임.

〈 2018~2020년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집행현황 〉

(단위: 천원,%)

연도	예산 현액	지출 액	이월액	불용액 (보조금 반납금 제외)	불용률 (%)	불용사유
2018년	16,463,200	16,105,604	0	357,596	2.2%	
2019년	18,730,755	13,805,042	0	4,925,713	26.3%	○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완화추세에 따라 이를 보완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역할은 축소(대상자 감소 등)
2020년	19,934,540	12,848,879	0	7,085,661 (12월 기준 추정치)	35.5%	○ 계획인원 대비 실제인원 부족에 따른 집행잔액 (10,713백만원) 이는 정부의 기초보장제도 완화에 따라 신규 책정 인원 감소에 따른 것임 ○ 코로나 19로 워크숍 미실시에 따른 사무관리비 집행잔액(3백만원)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2020년 10월말 수급자 수는 4,500명으로 2018년과 2019년과 비교하였을 때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경감추이 〉

(단위 : 명)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8년	6,337	6,409	6,418	6,447	6,660	6,848	6,822	6,673	6,605	6,335	6,189	6,108
2019년	6,027	6,085	5,904	5,890	5,837	5,814	5,712	5,459	4,941	4,893	4,798	4,712
2020년	4,841	4,785	4,733	4,795	4,764	4,751	4,669	4,111	3,577	4,500		

2) 문제점

- 본 사업은 2020년도 사업의 목표인원을 12,400명으로 추계하였는데 이는 2019년도 4,712명에 비해 263.2% 높은 수치임. 하지만 2020년 9월 수급자 실적은 3,577명으로 목표치에 28.8% 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서울형 수급자: 6,108명('18년)→4,712명('19년,22.8%감)→3,577명('20.9월,24.0%감)

※ 기초수급자 : 290,000명('18년)→318,127명('19년,9.6%증)→359,156명('20.9월,12.8%증)

- 이는 본 사업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연계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사업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됨. 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이 증가하게 된다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사업 예산은 불용으로 이어지게 구조가 되는 것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소득평가액과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산출한 소득 인정액 단일기준으로 수급자의 재정상황을 판단하는 반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것이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음.

〈중앙정부 기초생활보장급여별 수급권자 선정기준 (2020년 기준)〉

○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그밖에 추가적인 지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2020년 중앙정부 기초생활보장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

(단위 : 원)

구분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702,878	1,196,792	1,548,231	1,899,670	2,251,108	2,602,547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5%)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694,858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 (2020년 기준)〉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단위 : 원)

구분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43%	755,593	1,286,551	1,664,348	2,042,145	2,491,942	2,797,738

○ 재산기준 : 가구당 135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30백만원 이하, 자동차기준 적합)

○ 부양의무자 기준 : 가구 소득 및 재산기준(6억원 이하) 동시 충족

○ 2013년부터 2020년 4월까지 연도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 및 국민기초수급자의 증감추이는 다음과 같음.



[그림] 연도별 서울형 기초수급자 및 국민기초수급자 증감추이

### 3) 검토의견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중지·탈락자를 대상으로 하여 수급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정부의 제도 변화에 매우 민감함.
-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폐지 등 제도변화에 따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 선정기준·급여방식 등 정부제도 변화와 연동된 지속 가능한 제도로의 개선(안) 마련이 필요함. 특히 대상자 변동 추이를 면밀히 파악하여 적정 예산 편성 및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합리적 보완모델 마련이 필요함.

## 5. 생활복지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예산서 90p.)

### 1) 현황

- 생활복지 통합정보시스템의 ‘복지서비스 비대면 신청·관리 시스템 구축’은 이용자가 복지시설을 방문하거나, 돌봄종사자가 요보호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는 등 대면 활동 중심의 서비스 방식에서 비대면 접근 방식의 확대로 민원 편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본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전년 대비 1억 2천 5백만원이 증액된 2억 1천 9백만원이 편성됨.
- 주요 증액 사유로는 원래 복지 대상자가 수기로 진행하던 4종 업무(위기가구 발굴·신고, 서울형 긴급복지신청, 바우처 택시 이용신청, 장애인특별공급 알리미)를 비대면 복지서비스를 활용하여, 서울복지포털을 활용한 신청 접수 및 관리 시스템 구축하는 것으로 세부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이 제시 할 수 있음.

#### 〈비대면 복지서비스 구축 대상 업무(’21년)〉

비대면 신청 대상 업무	신청주체	내 용	소관부서
위기가구 발굴·신고	복지대상자 복지기관	- 공사·공단 등 실국별 연계기관을 활용한 위기가구 복지상담 및 신고·신청	지역돌봄 복지과
서울형 긴급복지 신청	복지대상자	-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신청	
바우처택시 이용신청	복지대상자	- 보행상 장애 있는 중증장애인이 시와 협약을 맺은 콜택시 이용시 이용요금의 일정부분 지원 신청	장애인자립 지원과
장애인특별공급알리미	복지대상자	- 장애인대상 주택특별공급 문자알림서비스 신청/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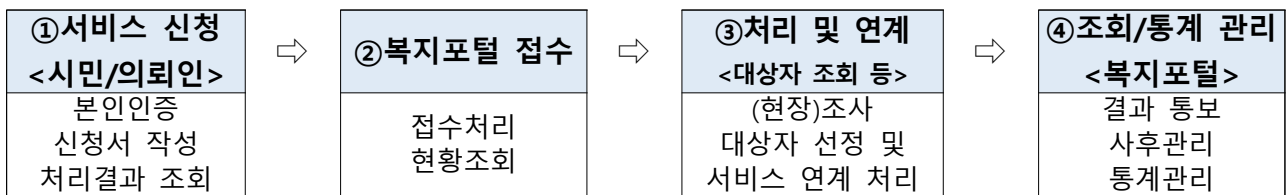
- 구축 대상은 4개 서비스, 15개 업무기능, 42개 세부화면이며, 업무기능으로는 신청/의뢰대상 정보, 신청 및 처리 목록관리, 조사 및 선정, 상담, 서비스 연계, 결과관리, 유관기관 연계, 통계 및 현황 관리가 있음.

### 〈업무별 주요 기능〉

비대면 신청 업무	주요 기능	비고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자 인증 : 휴대폰 인증, 디지털원패스 등</li> <li>- 신청인 정보관리 : 이름, 연락처, 인증정보</li> <li>- 개인정보 동의</li> <li>- 기관 관리 : 등록기관, 담당자 연락처 등</li> <li>- 문자(SMS) 연동 : 신청결과 안내 등</li> </ul>	
위기가구 발굴·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지상담 의뢰신청 : 대상자 정보, 신청업무, 소관 기관 등</li> <li>- 의뢰신청 목록 조회</li> <li>- 서비스의뢰 수신 : 접수목록 관리</li> <li>- 신청자 관리 : 돌봄계획 수립, 서비스제공 결과 관리</li> <li>- 서비스 점검 및 사후관리 : 종결처리, 서비스 연계</li> <li>- 통계 : 서비스의뢰 통계, 의뢰기관 통계</li> </ul>	
서울형 긴급복지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서 작성 : 신청자 정보, 신청업무, 소관기관</li> <li>- 신청결과 조회</li> <li>- 지원대상자 관리 : 목록조회, 현황관리</li> <li>- 인터넷신청 접수처리</li> <li>- 현장조사 : 상담 및 결과 관리</li> <li>- 통계 : 신청 및 처리 현황(시·구·동)</li> </ul>	세부 결과 관리는 기존의 생활복지시스템 연동
바우처택시 이용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서 작성 : 신청자 정보, 신청업무, 소관기관</li> <li>- 신청결과 조회</li> <li>- 신청서 접수처리 : 접수목록관리 및 담당 지정</li> <li>- 신청정보 확인 : 거주지, 장애등록 상황, 보행장애, 결제카드 등</li> <li>- 신청자 목록관리</li> <li>- 생활이동지원센터 접수처리 : 협력사 등록, 카드정보 관리</li> <li>- 민원상담 관리 및 현황조회</li> <li>- 통계 : 신청자, 제외자, 지원결과 등</li> </ul>	
장애인특별공급 알리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특별공급알리미 서비스 신청</li> <li>- 서비스 해지 신청 및 결과 확인</li> </ul>	

- 본 시스템 구축으로 신청 및 접수 전산화로 체계적 자료관리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로 업무 운영의 효율성 및 안정성 제고 할 수 있으며, 정보화 예비 타당성 심사 타당성 심사 결과 적정한 것으로 나왔음. 본 사업의 서비스 처리절차 개요는 다음과 같음.

〈비대면 복지서비스 처리절차 개요〉



2) 문제점

- 생활복지 통합정보시스템 ‘복지서비스 비대면 신청.관리 시스템 구축’은 기존의 수기 업무를 전산 시스템 구축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개편하여 민원 편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하지만 정부에서 ‘21년 지역기반 돌봄 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개편 내용으로 지자체 사회보장업무의 디지털화를 통해 서면업무를 줄이고 상담서비스 확충, 자격관리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음. 이는 본 시스템에서 추진하는 비대면 신청.관리 시스템 구축기능과 중첩될 우려가 있음.

3) 검토의견

- 비대면 신청.관리 시스템 구축은 복지대상자에게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는 필요성이 인정됨. 하지만 정부에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행복e음) 고도화를 통해 일선 현장의 업무량 경감 및 데이터 기반 정책 및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편을 이미 추진하고 있음. 중앙정부 사업과의 중복 우려가 있으므로 본 사업의 시스템 구축 기능의 연계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6. 서울 돌봄 SOS 센터 설치 운영 사업 (예산서 218p.)

### 1) 현황

- 위 사업은 ‘돌봄SOS센터’ 를 설치하여 일상생활 케어가 필요한 주민의 욕구에 공공이 적응 대응함으로써, 파편적으로 진행되던 돌봄서비스의 통합적 연계로 주민 복지체감도 향상을 목적으로 전년보다 123% 증액된 318억 2천 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 증액의 주된 내용은 전 자치구 실시에 따른 돌봄SOS센터 홍보 강화 및 2021년 신규 채용 인력(323명)의 인건비 및 2021년도 25개구 시행에 따른 서비스 지원 사업비의 증액임.
-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2021년 돌봄매니저 인건비는 132억 6천 4백만원이며, 25개구 돌봄SOS센터 서비스 지원 사업비는 174억 7천 4백만원으로 편성됨.

### 〈돌봄SOS센터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2021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12,535,978	14,275,294	31,824,950	17,549,656	123
사무관리비	330,000	330,000	460,000	130,000	39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11,698,978	13,378,294	30,737,950	17,359,656	130
자치단체 자본보조	507,000	567,000	627,000	60,000	11



- 돌봄SOS센터 사업의 인력은 2020년 25개 자치구에 338명 채용 하였으며, 2021년 신규시행 자치구 12개 및 미충족 자치구 3개에 323명을 채용할 예정임. 2021년 기준 인력 충원율은 84%를 충족할 것으로 보임.

〈2021년 돌봄SOS센터 인력 채용 현황〉

채용목표 인원(A)	20년 채용인원(B)	21년 채용목표 인원(C)	부족분(D)
898명	338명	323명	237명

- 20년 채용인원은 총 338명(복지직 173명+간호직 165명)이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19년 시행자치구(5개구) : 70명(복지직 29명+간호직 41명)
- '20년 선정자치구(8개구) : 245명(복지직 124명+간호직 121명)
- '20년 신규자치구(12개구) : 23명(복지직 20명+간호직 3명)

(단위 : 명)

구분	자치구	총 계	사회복지직 9급	간호직 8급	자치구	사회복지직 9급	간호직 8급		
2020년	총 계	338	173	165					
	2019년 선정 자치구 (5개구)	성동구	18	9	9	2020년 신규 시행구 (12개구)	종로구	1	-
		노원구	22	11	11		중 구	2	-
		은평구	15	8	7		용산구	2	-
		마포구	3	1	2		동대문구	2	-
		강서구	12	-	12		성북구	1	-
	2020년 공모선정 자치구 (8개구)	광진구	27	16	11		강북구	2	-
		중랑구	11	-	11		구로구	2	3
		도봉구	30	15	15		금천구	2	-
		서대문구	31	16	15		동작구	2	-
		양천구	38	19	19		관악구	2	-
		영등포구	38	19	19		서초구	1	-
		송파구	34	21	13		강남구	1	-
		강동구	36	18	18				

- '21년 채용인원은 총 323명 (복지직 194명+간호직 129명)임.

구분	자치구	총 계	사회복지직 9급	간호직 8급	비 고	
	총 계	323	194	129		
2021년	'20년 신규시행 자치구 (12개구)	소 계	298	177	121	
		종로구	15	8	7	※ 구 정원예산 고려한 최대 채용가능 인원
		중 구	26	13	13	※ 구 정원예산 고려한 최대 채용가능 인원
		용산구	32	17	15	
		동대문구	29	16	13	
		성북구	21	21	0	
		강북구	28	14	14	
		구로구	32	17	15	
		금천구	22	11	11	
		동작구	32	19	13	
		관악구	42	22	20	
		서초구	19	19	-	
		강남구	0	0	0	
	미충원 인력추가 (3개구)	소 계	25	17	8	
		광진구	5	-	5	
		마포구	8	5	3	
		강서구	12	12	-	

\*최대인원 : 자치구 동주민센터 수×2명+구청 돌봄지원팀 2명

- 돌봄SOS센터 총 8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9월 25개 자치구 추진 실적은 총 20,273건으로 나타나고 있음. 가장 많이 지원 되는 서비스는 '정보상담'으로써 돌봄관련 문제 상담, 서비스 기관 정보를 제공하는 것임.

〈돌봄SOS센터 서비스 추진실적('20년 9월 기준)〉

구 분	계	일시 채가	단기 시설	동행 지원	주거 편의	식사 지원	건강 지원	안부 확인	정보 상담
25개구	20,273	2,810	9	545	1,011	5,057	106	152	10,583

## 2) 돌봄SOS센터 사업의 문제점

### ① 돌봄SOS센터 사업의 효과성 검증 미비

- 돌봄 SOS센터 사업은 시민이 중심인 돌봄 체계로의 혁신을 통해 동 복지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되긴 하였으나,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과의 차이점이 미비함.
- 또한 2019년도 시범사업에 대한 사업효과도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 시점에서 전 자치구로 사업을 확대하여 사업 효과성 및 안정화에 대한 우려가 있음.

### 〈돌봄SOS센터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비교〉

구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돌봄SOS센터
사업 대상	◆ 65·70세 도래어르신, 빈곤위기가정, 출산가정 등 방문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 어르신·장애인 및 일반시민 등 긴급한 돌봄욕구 있는 시민으로 <b>대상자 확대</b> · '19년 시범사업(어르신·장애인 주 대상) → '21년까지 (일반시민 포함 대상 확대)
주요 서비스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blue; border-radius: 10px;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발굴 및 보호</div> ◆ 복지사각지대 발굴, 현금·현물위주의 소득보장 서비스 및 <b>보편방문간호</b> 제공 · 서울형기초·긴급복지 등 서울형 공적지원 · 방문간호서비스(65·70세 도래어르신, 영유아) ◆ 민간자원 연계 취약계층 지원 · 푸드뱅크마켓,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회 사업 등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blue; border-radius: 10px;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돌봄욕구 해결</div> ◆ 현금이 아닌 단기·일시보호, 가사·간병지원 등 <b>돌봄서비스 직접 제공 및 연계</b> · 일시재가 등 8개 돌봄서비스 (직접 제공) · 서비스 기관 맞춤형 연계 (간접 제공) ◆ <b>긴급한 일상적 불편</b> 상황을 <b>신속히 해결</b> · 이동지원, 주거편의, 식사지원서비스 제공

### ② 돌봄SOS센터 사업 및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간 연계 부족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및 돌봄SOS센터 사업 간 연계현황이 미비함. ‘찾동 ⇒ 돌봄SOS센터’ 연계 4,137건(39.1%)로 높게 나타나, 찾동에서 발굴된 사례관리를 기반으로 SOS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돌봄SOS센터 ⇒ 찾동’ 연계 46건(0.4%)로 나타남.

〈돌봄SOS센터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연계현황('20.1~9월말 기준)〉

구 분	총 접수 (건)	찾동 ⇨ SOS (건)	SOS ⇨ 찾동 (건)	SOS ⇨ 장기요양 (건)	SOS ⇨ 노인맞춤돌봄 (건)	SOS ⇨ 장애인맞춤자원(건)
전 체	10,583	4,137	46	337	233	61
비 율	-	39.1%	0.4%	3.2%	2.2%	0.6%

③ 돌봄SOS센터 인력 배치 문제

- 또한 돌봄SOS센터 인력의 경우 사업 조기 확대로 인해 전 자치구에 인력이 100% 충원되지 않은 상황이며, 2020년 신규시행 12개 자치구 인력(323명) 채용이 2021년 7월경에 예정되어 있고, 전체 충원율은 84%임.
- 본 사업의 기본모형인 돌봄매니저(복지직+간호직) 2명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전 자치구에 총 898명이 배치되어야 함. 하지만 2021년까지 751명이 배치 될 예정임, 이에 대해 돌봄수요가 낮은 구의 경우 돌봄매니저를 1명씩 배치해도 무방할 것이라는 것이 집행부의 입장이지만, 본 사업의 기본 설계와 목적을 고려한 안정적 인력 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이미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을 통해 채용된 복지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시비로 보조해주고 있는바, 돌봄 SOS센터 사업을 시행하며 추가로 채용되는 인건비에 대한 자치구와의 재정분담 구조 등에 대해 장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④ 돌봄SOS센터 서비스 공급기관 부족 및 서비스 연계 편차 발생

- 본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계획보다 전 자치구로 시행이 빨리 실행되었으나, 전체적인 서비스 제공기관(민간)의 공급 측면에서 보았을 때, 자치구별 서비스 제공기관(민간)이 부족하며, 지역 간 서비스 연계 현황에도 편차를 보임.

- 25개구 기준 총 585개 업무협약 기관(아래표 참조)이 있으며, 기존 5개구는 구별 평균 37.4개소이며 신규 20개구는 평균 19.9개소임. 또한 8대 서비스<sup>4)</sup>를 모두 제공하는 자치구는 25개 자치구 중 노원구와 마포구가 유일하며, ‘건강지원’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25개 자치구 중 5곳에 불과함. 이는 돌봄SOS센터 사업의 취지인 다양한 돌봄욕구 해결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선행되지 못한 채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는 지역별 제공 서비스 제공 실적에 영향을 미쳐, 지역 간 서비스 제공 연계 현황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신규시행 자치구 20개 중 5개(중구, 광진구, 동대문구, 도봉구, 동작구)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10개미만으로 구별 평균 19.9개소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음. 이는 이용자의 서비스 질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보편적 서비스 제공과 서비스의 상향평준화 측면에서 제고해야 할 사항임.
- 자치구별 서비스 제공기관이 부족할 경우 지역 내에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역을 이동하여, 서비스 연계가 이루어 질 수 있음. 이는 지역사회 안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케어 측면에서도 벗어나는 일임.

〈자치구별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현황('20.9월말 기준)〉

구분 (자치구별)	협약 기관(개)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지원	안부확인	건강지원
합 계	585*	415	68	51	35	63	22	5
'19년 시범 사업 5개구	성동구	27	17	8	2	2	1	
	노원구	43	21	9	4	4	6	5
	은평구	37	26	2	5	5	4	
	마포구	41	16	11	2	3	4	7
	강서구	39	23	10	2	4	2	1

4)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지원, 안부확인, 건강지원, 정보상담 서비스.

신규 시행 20개구	종로구	10	6	1			3		
	중 구	7	3				4		
	용산구	15	5	6			4		
	광진구	8	4		3	2	2	3	
	동대문구	9	4				4		
	중랑구	30	26	4			1		
	성북구	25	21	2			2		
	강북구	26	21			5	1		
	도봉구	8	3	2	2	2	2		
	서대문구	28	22	2			4		
	양천구	32	24	2	7	5	2		
	구로구	34	30				4		
	금천구	18	16	1			1		
	영등포구	36	30	1	18	2	2	2	
	동작구	7	6				1		
	관악구	40	35	2			3		
	서초구	10	9		6	1	2	5	2
	강남구	11	7	4			1		
	송파구	19	16	1			2		
	강동구	25	24				1		

※ 중복서비스 제공하는 제공기관이 있어 서비스별 기관수와 총계는 차이가 있음

- 2020년 돌봄서비스 중단 현황은 총 1,212건으로 단순변심이 753건으로 가장 많음. 이는 2020년 1~10월 돌봄서비스 제공실적 26,746건의 2.8%에 해당하는 수치임.

〈서비스 이용 중 중단 현황(1개월 이내) 및 사유〉

(‘20년 1~10월 기준, 단위: 건)

총계	대상자 개인 신변변화로 인한 중단			
	단순변심	이사·입원	사망	상황호전
1,212	753	321	74	64

※ 돌봄SOS센터 서비스 이용건 총 26,746건(‘20년 10월 기준) 중 서비스 중도 중단 총 1,212건(4.5%) 발생

### 3) 검토의견

- 돌봄SOS센터는 시범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결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촘촘히 사업의 타당성 및 실현방안을 마련하여 구체화된 안으로 사업을 안정화 시킬 필요가 있음.
- 돌봄SOS센터 인력은 전 자치구 확대에 따라 2021년 까지 채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인력은 점점 비대해지고 있음. 이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인력이 전국에 있는 배치되어 있는 만큼 사업의 본래 목적에 맞는 돌봄 매니저와 찾동 플래너의 업무 분장 등 사업 기본 모형에 맞는 안정적인 인력 운용을 위한 중장기적 차원의 검토가 필요함.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및 돌봄SOS센터 사업간 선 순환적 업무체계 연계를 강화하여 사업 간의 효과성을 배가 시켜야함. 업무 메뉴얼을 통합하고 돌봄 대상자 발굴 업무 및 서비스 연계 체계의 활성화가 필요함.
-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충분한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확보하고, 제공기관 간 서비스 편차를 줄이기 위한 서비스 공급기관의 제공기준을 명확히 확립해야 함.
  - 자치구별 서비스 제공기관이 부족한 지역은 서비스 제공기관 확보 노력을 기울이고 기관이 제대로 된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준비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서비스 기관 발굴 시 이용자 및 돌봄매니저 만족도를 필수항목으로 반영하는 등 제공기관 업무 협약 체결 기준을 엄격하게 관리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함.
- 돌봄SOS센터의 사업의 서비스 이용 중단 현황 사유를 파악하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함. 특히 '단순변심'으로 인한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데 참고 할 필요가 있음.

## 7.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어르신 지원사업 (예산서 261p.)

### 1) 현황

- 본 사업은 장기요양이 필요하나 본인부담금 지불여력이 없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어르신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서비스(4개 서비스<sup>5)</sup>)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임.

〈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비율

서비스 구분		일반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료급여수급자)	감경대상자	
				60/100 감경	40/100 감경
급여 대상	재가급여	15%	무료(면제)	6%	9%
	시설급여	20%	무료(면제)	8%	12%

- 2020년도까지는 사각지대 재가어르신 간병서비스 사업과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사업이 구분되어 있었으나, 2021년도부터는 사각지대 재가어르신 간병서비스 사업은 제외하고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만을 지원하고 있음.
- 이는, 2020년부터 돌봄SOS센터 사업이 서울시 전자치구로 확대되면서, 돌봄SOS센터 사업을 통해 재가어르신 간병서비스 사업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본 사업에서는 해당 내용을 종료하게 된 것임..
- 최근 3년간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의 추진실적은 다음과 같음.

5) 노인요양시설, 노인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



〈표〉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추진실적

구분	예산액 (천원)	집행액	집행률 (%)	신청 대상자
2018	101,675	101,317	99.6%	89명
2019	110,000	71,920	65.3%	79명
2020.9.	110,000	41,244	37.5%	74명

2) 검토의견

- 현재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에서는 돌봄SOS센터 사업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표〉 돌봄SOS센터 사업과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어르신 지원사업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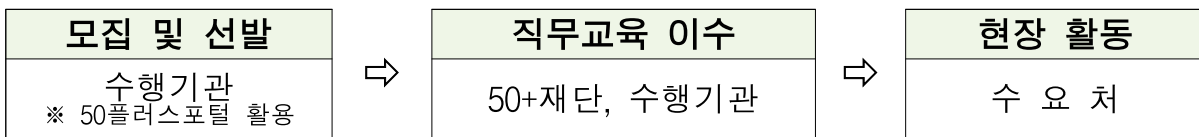
구분	돌봄SOS센터 사업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어르신 지원사업
담당부서	복지정책실 지역복지돌봄과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사업대상	돌봄이 필요한 서울시민 (중위소득 85%이하는 돌봄서비스 비용지원)	①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이며, ② 장기요양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인정 받은 자 ③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자
제공서비스	돌봄대상자에 돌봄매니저 방문, 맞춤형 8대 서비스 지원 (일시재가, 단기시설, 이동지원, 주거편의, 식사지원, 건강지원, 안부확인, 정보상담서비스)	장기요양 4개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재가급여 서비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중 1개 서비스 · 시설급여 (노인의료복지시설)
지원금액	〈1인 연간 이용한도 금액 156만원〉 · 일시재가 1일 한도 188,700원 (연간 최대 60시간) · 단기시설 1일 57,320원 (연간 최대 14일)	<u>재가급여 (1개 서비스에 한 함, 매월 갱신)</u> · 주야간보호 : 최대 1일 12시간, 월 25일 이내 · 방문요양 : 최대 1일 4시간까지 (월 30만원 한도) · 방문목욕 : 최대 월 4회 <u>시설급여</u> · 노인의료복지시설 월 본인부담금 전액

- 돌봄SOS센터는 서울시민에게 보편적 돌봄서비스의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2021년부터는 2020년까지 어르신, 장애인이 주 대상이었던 것을 전 시민으로 사업대상의 범위를 대폭 확대함.
- 금년 집행부에서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며 25개 전 자치구로의 사업 확대를 앞당겨 시행하였음.
- 국민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어르신 지원사업의 경우, 돌봄SOS센터 사업과 비교해 사업의 대상자는 적으나 지원금액은 월 최대 한도를 설정하고, 월 별로 갱신함으로써 연간 최대지원 가능한 시간은 돌봄 SOS센터 사업과 비교해 더욱 길게 나타나고 있음.
- 돌봄 SOS센터 사업과의 본 사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나, 돌봄SOS센터 사업을 통해 본 사업의 대상자와 같이 상시돌봄이 필요한 사람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해당 사업은 연간 110명을 지원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사업전체 규모 상 별도의 홍보사업이 수반되지 않아, 신규 이용자가 유입되기 보다 고정된 이용자가 연간 단위로 사업을 이용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 해당 사업의 최근 추진실적과 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였을 때, 단독사업으로 추진하기보다 부서간의 협의를 통해 돌봄SOS사업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사업 추진방향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8. 보람일자리 사업 (예산서 339p.)

### 1) 현황

- 본 사업은 사회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50+세대(만 50세~67세) 서울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사회공헌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속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활력있고 안정된 인생후반기를 지원하고 디딤돌로서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임.
- 집행부에서는 전년대비 40억 원이 늘어난 149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음. 증액의 주요 사유는 장애인 시설 등 서비스 인력 확대 및 보람일자리 참여자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것임.
- 보람일자리 사업은 현재 50+재단,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등 7개 기관과 서울시 3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음.



[그림] 보람일자리 추진체계

### 2) 주요 쟁점

- 현재 보람일자리 사업은 총 4대 영역 28개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보람일자리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안)

연번	영역	수행기관	세부사업명	'20 지원 (개)	'21 계획(안) (개)	'21 활동기간(안)	
						기간	개월
1	당사자	서울시50플러스재단	50+학습지원단	100	100	3.1~11.30	9
2	당사자	서울시50플러스재단	50+컨설턴트	70	70	3.1~11.30	9

연번	영역	수행기관	세부사업명	'20 지원 (개)	'21 계획(안) (개)	'21 활동기간(안)	
						기 간	개월
3	사회서비스	서울시50플러스재단	장애학생학습지원단	30	100	3.1~11.30	7.5
4	마을	서울시50플러스재단	행복도시라나눔지원단	20	50	3.1~12.15	9.5
5	세대통합	서울시50플러스재단	학교안전지원단	110	110	3.1~12.15	6
6	세대통합	서울시50플러스재단	도시농부텃밭교육단	50	50	6.1~11.30	6
7	사회서비스	서울시50플러스재단	일자리사업지원단	100	150	6.1~11.30	6
8	사회서비스	서울시50플러스재단	50+스마트기기지원단	30	30	7.1~11.30	6
9	사회서비스	서울시50플러스재단	어르신돌봄지원단(구케어기버)	20	23	4.1~11.30	8
10	마을	서울시50플러스재단	50+마을기록지원단	30	30	6.1~11.30	7
11	세대통합	서울시50플러스재단	50+다문화 학습지원단	40	40	3.1~12.30	7.5
12	세대통합	서울시50플러스재단	어린이집공동회계사무원	40	100	3.1~11.30	9
13	세대통합	서울시50플러스재단	청소년시설50+지원단	50	56	6.1~11.30	6
14	마을	서울시50플러스재단	작은도서관 지원	50	50	3.1~11.30	9
15	마을	서울시50플러스재단	빛물관리 지원단	50	50	6.1~11.30	6
16	사회서비스	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	46	90	2.1~12.13	11
17	마을	도심권50플러스센터	50+에너지컨설팅사업단	60	60	6.1~12.31	6
18	세대통합	도심권50플러스센터	50+건강코디네이터사업단	40	80	6.1~11.30	9
19	세대통합	대한노인회서울시연합회	경로당복지파트너	220	220	3.1~11.30	9
20	세대통합	(사)한국치매협회	독거어르신 후견인 지원단	60	120	2.1~12.31	11
21	세대통합	서울시노인복지관협회	50+시니어지역상담가	52	52	4.1~10.31	7
22	마을(지역특화)	동작50플러스센터	현충원보람이, 방문교사 등	70	100	3.1~10.31	8
23	마을	지역돌봄정책과	우리동네돌봄단	500	500	7.1~12.30	6
24	마을	지역돌봄정책과	공공복지서포터즈	134	134	3.1~11.30	9
25	마을	지역돌봄정책과	위기가정통합사례관리	55	55	4.1~12.31	9
26	사회서비스	장애인복지정책과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지원단	40	100	3.1~11.30	9
27	사회서비스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시설지원단	220	350	3.1~11.30	9
28	사회서비스	장애인자립지원과	최중증 낮활동지원사업단	70	90	2.1~11.30	10
29	공모사업		공모를 통한 시범사업	443	-		
30		신규사업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	110	2.1~12.31	11
31		신규사업	저소득어르신급식 지원	-	130	2.1~12.31	11
계				2,800	3,200		

- 50플러스 세대에게 사회공헌일자리 및 경험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업의 취지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보람일자리 사업을 살펴보면 사업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기존 통·반장 등 지역사회 내에서 유사하게 수행하는

사업이 보이므로 사업내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50+마을기록지원단 사업의 경우 마을자원을 조사하고 각 지역의 유의미한 장소 및 역사, 인물 등 기록소재를 발굴한다고는 하나 해당 자료의 활용방안 등이 미비함.
  - 우리동네돌봄단 사업은 지역 내 위기가구 및 취약계층 등 복지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고 대상 가정을 정기방문해 안부확인을 하는 것이 목적이나, 이미 해당 사업은 지역의 통·반장이나 이웃돌보미, 나눔이웃 등 기존 지역에서 진행되는 유사사업도 존재함.
  - 50+에너지건설턴트 사업단에서는 강서구·송파구 관내 주민센터, 노원구·강동구 관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에너지 수요조사와 진단을 실시한 것을 주요 실적으로 작성하고 있으나, 공공건물의 관리주체는 공공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이 적절한 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임.
- 발달장애인 지원,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 장애학습지원과 같은 장애인 지원사업, 청소년시설 50+지원, 위기가정통합사례관리 등 특수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거나, 연관 지식이 있는 전문인력이 수행해야 할 것임. 이러한 측면에서 제공기관에서 채용과정 및 교육과정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보람일자리 사업 참여 자격 요건 중 연령을 보면, 2016년 만 50세~64세에서 2017년에는 3살을 더 늘린 만 50세~67세로 정하고 있음.
  - 사업 참여자의 연령이 상승한다고 해서 사업의 참여연령을 상승시키는 것은 50+세대의 사회참여를 지원한다는 본래 의미에 부합하지 않으며, 사회참여 활동이 단순 생계유지를 위한 근로활동이 아니라 여가활동, 자원봉사활동, 평생교육, 친목단체 활동, 지역사회활동 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 보람일자리 사업은 퇴직한 50+세대를 대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음. 그러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이 넘었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참가연령을 연장시키는 것보다, 보람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이 참여연령이 넘은 뒤에도 자원봉사활동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연계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보람일자리 사업 참여를 계기로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 지역사회활동 등의 형태로 전환하여 50+세대가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임.

### 3) 검토의견

- 보람일자리 사업은 50+세대를 대상으로 경험과 경륜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나, 현재의 보람일자리 사업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사업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지역사회복지관 등에서 유사하게 제공하는 사업 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보람일자리 사업 전반에 사업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할 수 있음.
- 또한, 단순히 사업대상자의 연령을 늘리는 것 보다 사업대상 연령이 넘은 참가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참여 연계방안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9.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운영 (예산서 471p.)

### (1) 현황

-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운영사업은 최중증 뇌병변장애인과 가족의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수립된 뇌병변 장애인 지원 마스터 플랜(서울시장 방침 제181호, 2019.9.2.)을 통해 추진 중인 사업임.
- 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은 중복장애 및 만성질환자가 많은 뇌병변장애의 특성에 따른 제도적 지원 확충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뇌병변장애인 당사자와 부모의 뇌병변장애인 지원 대책 마련 요구에 대한 후속조치로,
- '17년 6월 뇌병변장애인 정책개발 TF 구성 운영 ➡ '18년 뇌병변장애인 중장기 지원계획 연구용역(서울시 복지재단) ➡ '19년 3월~6월 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 수립 TF 운영<sup>6)</sup>을 통해 '19년 9월 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 플랜을 수립(9.2)·발표(9.10)<sup>7)</sup>하였음.
- 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은 2019년부터 5개년 간 뇌병변장애인 지원을 위해 26개 세부사업, 총 604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중장기 지원계획임.

#### ❖ 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 주요내용('19년 ~ '23년)

① 건강 지원 (6개, 122억원)	· 이동 등록 관리시스템 운영,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확대, 방문건강관리 확대, 성장기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강화, 대소변 흡수용품 지원 확대, 간병인 지원 확대
② 돌봄 지원 (5개, 47억원)	· 영유아 사회·가정 활동 지원 강화, 장애·비장애 통합 놀이방 설치, 동료 상담가 양성, 진로실험센터 설치, 직업재활시설 확대
③ 인프라 확충 (9개, 247억원)	· 활동지원 가산수당 지원 확대, 활동지원 교육과정 운영, 낮활동 지원 확대, 비전센터 설치, 거점 복지관 지정·운영 확대, 긴급 및 주말 돌봄서비스 확대, 주간보호시설 지정 확대, 주거편의 지원 확대, 주거모형 개발·운영
④ 권익 증진 (6개, 188억원)	· 뇌병변장애인 강사 양성, 관광지원 강화, 체육시설 무장애화 지원, 의사 소통관리시스템 구축, 홈헬퍼 지원 확대, 돌봄가족 휴식지원 강화

6) 2019. 3 6월 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 수립 TF 구성·운영(7회)

- 20명(뇌병변장애인 2, 연구원·교수 5, 시설·단체·부모회 5, 시의원 1, 공무원 7)

7) 총 26개 사업 중 '비전센터 설치·운영' 사업을 부모 최우선 과제로 선정

- 집행부에서는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이 어려운 중증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지역사회 서비스 기반이 취약해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고 있어 인프라 구축 필요하고, 최중증 뇌병변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공간 확보, 교육·돌봄·건강 등 종합 서비스 제공 가능한 시설 전무하여 특화된 전용시설 설치·운영이 필요하여 2023년 까지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8개소 설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는 자치구 공모를 통해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마포구 1개소를 선정하여 설치 진행 중에 있음.

### 〈마포구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설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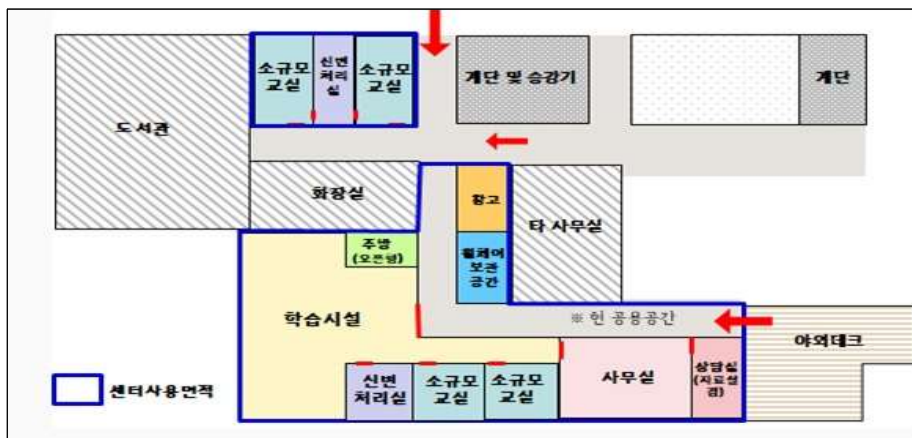
#### 【설치개요】

- 센터 명 : 마포구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 위 치 : 마포구 신촌로 26길 10 (우리마포복지관 2층)
- 공간구성 : 학습시설, 화장실 및 신변처리실, 소규모교실, 사무실, 상담실, 오픈형주방, 창고 등 (495㎡)

#### 【추진경과】

-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공모결과 마포구 선정 : 6월
-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설계용역 및 설치공사 : 7~8월
-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위탁체 공개모집 및 협약체결 : 10월~11월
-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준공 및 개관 : 12월(예정)

#### 【공간구성】





- 2020년에는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2개소 설치비 600백만원과 2개소 운영비 425백만원을 편성하여 총 1,02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1년에는 설치예산은 미반영 하고, 2개소 운영을 위한 예산 900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운영〉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2021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1,025,000	1,025,000	900,000	△125,000	△12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25,000	425,000	900,000	475,000	112
자치단체자본보조	600,000	600,000	0	△600,000	△100

□ 예산(안) 산출근거

과목구분	2020년 본예산	2021년 예산(안)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인건비, 운영비 212,500,000원*2개소 = 425,000천원	○ 인건비, 운영비 450,000,000원*2개소 = 900,000천원
	증감사유	
	○ 비전센터(2개소) 운영 개월수 증가에 따라 1개소당 지원금액 인상 (212.5백만원→450백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	○ 센터 설치비 300,000,000원*2개소 = 600,000천원	
	증감사유	
	○ '21년도에는 신규설치 센터가 없어 예산 미반영	

(2) 검토의견

- 서울시 장애인 394,843명('19년 12월말 기준) 중 뇌병변장애인은 41,304명 (10.4%)으로 전 장애유형 중 네 번째로 많고 중증 비율도 62%로 높으나

지역사회 서비스 기반이 취약하여, 뇌병변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종합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점을 볼 때,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설치·운영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서울시 장애인 현황 - 15개 유형〉

(2019. 12월말 기준, 명)

계	지체	청각	시각	뇌병변	지적	자폐성	신장
394,843	176,767	54,940	41,832	41,304	26,778	6,100	17,166
100%	44.8%	13.8%	10.6%	10.4%	6.7%	1.5%	4.3%
정신	언어	장루·요루	간	호흡기	뇌전증	심장	안면
16,435	3,327	2,855	2,515	2,127	1,244	1,068	385
4.2%	0.8%	0.7%	0.6%	0.5%	0.3%	0.3%	0.1%

- 다만, 2020년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설치 진행 상황을 보면 당초 집행부에서 설치하고자 계획하였던 2개소 중 마포 1개소만이 12월 개관을 목표로 설치 진행 중이고 1개소는 자치구도 정해져 있지 않고 있어, 나머지 1개소 설치·운영을 위하여 2020년 편성하였던 설치비 300백만원과 운영비 212백만원 총 512백만원은 불용이 예상됨.

〈2020년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설치·운영 사업 예산집행 현황〉

(단위: 천원)

2020년(10월말 현재)				불용추정(12월말 기준)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율(%)	불용추정액	불용추정율	사유
1,025,000	512,500	512,500	50.0%	512,500	50.0%	2개소 신규설치 예정이었으나 자치구의 수요감소로 50%의 불용이 예상됨

- 또한, 현재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1개소만 설치되어있으며 2021년에는 신규 비전센터 설치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2개소에 대한 운영비 예산을 반영하는 편성상 오류가 있어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임.

## 10.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지원 (예산서 499p.)

### (1) 현황

-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지원 사업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주 52시간 근무제 근무제가 적용됨에 따라 생활지도원 증원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추진 중인 국고보조사업(국비 50%, 시비 50%)임.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sup>8)</sup>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넘을 수 없게 되었고, 연장근로 1주 12시간을 합하여 최대 1주 52시간으로 변경되었으며,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부칙<sup>9)</sup>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 8) 제2조(정의)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 9)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 개정법이 적용되기 전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고 12시간까지는 연장근로가 가능하였으며, 주 40시간 적용기준이 주말을 제외한 5일이다 보니 주말 16시간까지 총 68시간(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의 장시간 근로를 초래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근로기준법을 개정함.
-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현재 종사자 수로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생활지도원 3교대 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994,270천원 증액한 3,434,400천원을 편성하였음.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지원사업〉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2021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3,050,162) 6,100,324	(x1,220,065) 2,440,130	(x1,717,200) 3,434,400	(x497,135) 994,270	(x41) 41
사회복지사업보 조	(x3,050,162) 6,100,324	(x1,220,065) 2,440,130	(x1,717,200) 3,434,400	(x497,135) 994,270	(x41) 41

- 2020년 추진현황을 보면 종사자 50인 이상인 거주시설 8개소에 대하여 32명의 추가 인력을 증원하여 10월말 현재 847,983천원을 집행하였음.

(단위 : 명)

자치구	시 설 명	소 재 지	채용인원 (3월말)	채용인원 (5월말)	채용인원 (7월말)	채용인원 (10월말)
	<b>8개소</b>		<b>13</b>	<b>21</b>	<b>23</b>	<b>32</b>
종로구	문혜장애인요양원	강원도 철원군	0	0	0	0
종로구	은혜장애인요양원	강원도 철원군	0	0	1	6
노원구	쉽터요양원	노원구	3	4	4	5
은평구	시립평화로운집	은평구	3	5	5	7
양천구	해맑은 마음터	경기도 김포시	3	3	2	2
영등포구	한사랑마을	경기도 광주시	1	3	3	4
강남구	라파엘의집	경기도 여주군	2	3	4	4
송파구	신아재활원	송파구	1	3	4	4

(2) 검토의견

- 2020년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지원사업의 추진현황을 보면 최종예산 2,440,130천원 중 10월 말 현재 847,983천원(34.8%)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020년 예산집행 현황〉

(’20. 10. 31. 기준 / 단위 : 천원, %)

본예산	추경 및 간주처리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률
(x3,050,162) 6,100,324	(x1,830,097) △3,660,194	(x1,220,065) 2,440,130	(x423,992) 847,983	(x796,073) 1,592,147	x34.8 34.8

- 사업추진 부진사유를 살펴보면 생활지도원 교대인력의 채용기준이 2호봉 이하인 자로 제한되어 있어 각 시설에서 신규채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10월 말 기준 4분기 분 인건비까지 집행된 것임을 감안하면 현재 집행잔액 1,592,147천원은 모두 불용될 것으로 판단됨.
- 동 사업이 정부주도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운영하고 정부내시액을 반영하여 예산 편성하고 운영되는 사업이라고는 하나, 현재 채용기준인 2호봉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게 될 경우<sup>10)</sup>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190명 채용을 목표로 편성한 2021년 예산도 불용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생활지도원 교대 인력의 채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인력 부족으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앙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 및 추가 인건비 지원 검토 등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 노력이 필요하겠다 하겠음.

10) 2호봉 생활지도원 인건비 기준은 1,821천원으로 급여가 적은편이며, 군전역자의 경우는(최소3호봉) 채용이 어려움.(거주시설 생활지도원 업무 특성상 야간업무가 많음)

### Ⅲ. 기금운용계획안

#### 가. 기금운용 총괄검토

- 복지정책실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장애인복지계정·자활계정),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이 있으며, 개별 법령 또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등에 근거를 두고 운영하고 있으므로,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용되어야 함.
  - 기금은 그 성격상 안정된 사업비용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여유자금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여 지방재정에 상당한 비효율성을 초래하며, 기금사업이 일반 예산 사업과 비교할 때 차별성이 미흡하고, 의회 예산안 심의를 제약한다는 점에서 기금 운용 방식보다는 일반회계 예산 항목을 통해 사업을 집행하는 방식이 보다 타당하다고 하겠음.
- 복지정책실 소관 기금(사회복지기금의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자활계정, 재난관리기금의 구호계정)의 2021년도 말 총 조성액은 1,022억 1천 6백만원으로 사업비 및 제반비용으로 224억 6천 5백만원을 지출할 계획임.

#### 〈2021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기금조성 계획〉

(단위 : 백만원 )

기 금 명		2020 말 조성액 ①	2021 년도 조성계획			2021 년말 조성액 ⑤ = ① + ④
			수입 ②	지출 ③	증감 ④ = ② - ③	
총 계		105,162	19,519	22,465	△2,945	102,217
사회 복지 기금	소 계	42,333	3,467	7,197	△3,729	38,604
	노인복지계정	12,246	564	770	△206	12,040
	장애인복지계정	22,655	2,488	5,541	△3,053	19,602
	자활계정	7,432	415	886	△470	6,962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62,829	16,052	15,268	784	63,613

※ 수입액은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지출액은 융자성·비용자성 사업비 및 기본경비

- 각 기금별 2021년 주요 사업계획을 보면, 노인복지 계정의 주요 사업비는 7억 6천 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9.1%(1억 8천 2백만원) 감액 편성된 바, 어르신 건강증진사업 6천 2백만원(전년대비 감 6천 2백만원), 어르신 정보화 교육 3천만원, 어르신 자원봉사 1억 3천 9백만원, 어르신일자리 사업장 임대자금 용자지원 1억원, 경로효친 행사지원 1천 4백만원(전년대비 감 1천4백만원), 어르신관련 학술대회 지원 2천만원(전년대비 감 1천만원), 어르신문화행사 지원 6천만원(전년대비 감 4천만원), 어르신 지도자육성 1억 1천 1백만원, 시설종사자 역량 강화 5천 2백만원(전년대비 4천 6백만원), 어르신 주거지원 7천만원(전년대비 감 1천만원), 어르신 복지증진 공모사업 1억 1천만원이 편성되었음.
- 장애인복지 계정의 주요 사업비는 55억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된 바, 장애인단체 공모사업지원 7억원, 장애인 전세주택 지원사업 48억원이 편성되었음.
- 자활계정의 주요 사업비는 8억 8천 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6.8%(1억 4천 8백만원) 감액 편성된 바, 자활종합경영지원 사업 7천만원(전년대비 감 1백만원), 자활교육훈련 9천만원(전년대비 감 7천 1백만원), 광역자활사업 육성 및 지원 3억 8천 9백만원(전년대비 증 5백만원), 자활유통활성화 5천만원(전년대비 증 8백만원), 전세점포 임대자금 용자 지원 2억원, 자활조사, 홍보 및 연대사업 8천 2백만원(전년대비 감 7천 3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의 주요 사업비는 152억 6천 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2.4%(4,952억 9천만원) 감액 편성된 바, 이재민 재해보상에 9억 5천만원(전년대비 감 4,763억 5천 2백만원), 의료 및 구호비 지원에 119억 9천 8백만원(전년대비 감 189억 4천만원),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사업에 23억 2천만원(전년대비 증 2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나. 기금별검토

### 1. 사회복지기금

#### ○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 2021년도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의 수입·지출계획을 보면, 수입액은 8억 1천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 8백만원이 감액되었음.
- 구체적 수입내역을 보면, 예치금회수 2억4천6백만원(전년대비 △6억1천7백만원), 기타수입 2억6천9백만원(전년대비 증 2억7백만원)이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2억9천5백만원(전년대비 증 1백만원)임.

####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수입계획〉

(단위 : 천원)

항 목	수 입	계	획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 감
합 계	810,617	1,218,788	△408,171
융자금회수(이자포함)	0	0	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예치금회수	246,153	862,706	△616,553
예수금	0	0	0
이자수입	295,464	294,188	1,276
기타수입	269,000	61,894	207,106

- 지출내역을 보면, 비용자성사업비 6억6천7백만원(전년대비 △1억8천2백만원), 융자성사업비 1억원(전년 동일)이고 예치금 4천만원(전년대비 △2억2천7백만원)임.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지출계획〉

(단위:천원)

지 출 계 획			
항 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 감
합 계	810,617	1,218,788	△408,171
비용자성사업비	667,335	848,835	△181,500
용자성사업비	100,000	100,000	0
기본경비	3,000	3,000	0
예탁금	0	0	0
예치금	40,282	266,953	△226,671

- 노인복지계정의 경우, 고유목적사업비가 2017년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2018년 10.5%, 2019년은 8.5% 증가한 반면, 예치금은 2017년 106.6%, 2018년 29.7% 증가하였다가 2019년 36.1%, 2020년 65.5%, 2021년 85.0% 감소하는 등 고유목적사업비에 비해 예치금 비중 쏠림 현상이 심화되는 것으로 보임.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적립금	적립금 총계	13,914	13,425	12,863	12,246	12,040	
	적립금 총계 증가율	△4.0%	△3.5%	△4.2%	△4.8%	△1.7%	
수입	합계	증감	442	361	△361	△529	△408
		전년대비증가율	33.8%	20.7%	△17.1%	△30.3%	△33.5%
	출연금	증감	0	0	0	0	0
		전년대비증가율	0.0%	0.0%	0.0%	0.0%	0.0%
지출	합계	증감	442	361	△361	△529	△408
		전년대비증가율	33.8%	20.7%	△17.1%	△30.3%	△33.5%
	지출액	금액	△42	85	76	△22	△182
		전년대비증가율	△4.9%	10.5%	8.5%	△2.3%	△19.1%
수지총	고유목적	증감	△42	85	76	△22	△182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괄비교	사업비	전년대비증가율	△4.9%	10.5%	8.5%	△2.3%	△19.2%
	예치금	증감	482	277	△437	△507	△227
		전년대비증가율	106.6%	29.7%	△36.1%	△65.5%	△85.0%
	예탁금	증감	0	0	0	0	0
		전년대비증가율	0.0%	0.0%	0.0%	0.0%	0.0%

### ○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 2021년도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의 수입·지출계획을 보면, 수입액은 107억 4천 3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31억4천만원이 감액 되었음.
- 구체적 수입내역을 보면, 예치금회수 82억 6천만원(전년대비 △28억3천 6백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5천만원(전년대비 △2천9백만원)임.

####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 감
합 계	10,743,368	13,886,799	△3,143,431
융자금회수(이자포함)	2,037,617	2,316,162	△278,545
예탁금원금회수	0	0	0
예치금회수	8,255,111	11,090,980	△2,835,869
예수금	0	0	0
이자수입	450,640	479,657	△29,017
기타수입	0	0	0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지출계획〉

(단위 : 천원)

지출계획			
항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감
합계	10,743,368	13,886,799	△3,143,431
비용자성사업비	700,000	700,000	0
용자성사업비	4,800,000	4,800,000	0
기본경비	41,000	25,000	16,000
예탁금	0	0	0
예치금	5,202,368	8,361,799	△3,159,431

- 지출계획 편성안은 107억 4천 3백만원으로 비용자성 사업비 7억원, 용자성 사업비 48억원(전년 동일), 예치금 52억 2백만원(전년대비 △31억5천9백만원)임.
- 장애인복지계정의 경우, 2020년 고유목적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 83.3% 증가하였으며, 예치금은 0.7% 증가하였음.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단위: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적립금	적립금 총계	24,346	23,657	25,491	22,655	19,602	
	적립금 총계 증가율	2.6%	△2.8%	7.8%	△11.1%	△13.5%	
수입	합계	증감	△710	625	△709	2556	△3,144
		전년대비증가율	△5.9%	5.5%	△5.9%	22.6%	△22.6%
	출연금	증감	0	0	0	0	0
		전년대비증가율	0.0%	0.0%	0.0%	0.0%	0.0%
지출	합계	증감	△710	625	△709	2556	△3,144
		전년대비증가율	△5.9%	5.5%	△5.9%	22.6%	△22.6%
	지출액	금액	990	△690	0	2500	16
		전년대비증가율	36.3%	△18.6%	0.0%	82.6%	0.3%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수지 총괄 비교	고유목적 사업비	증감	1000	△700	0	2500	0
		전년대비증가율	37.0%	△18.9%	0.0%	83.3%	0.0%
	예치금	증감	△1,700	1315	△709	56	△3,160
		전년대비증가율	△18.1%	17.1%	△7.9%	0.7%	△37.8%
	예탁금	증감	0	0	0	0	0
		전년대비증가율	0.0%	0.0%	0.0%	0.0%	0.0%

### ○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 2021년도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의 수입·지출계획을 보면, 수입액은 34억 2천 8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6억 1천 8백만원이 감액 되었음.
- 구체적 수입내역을 보면, 예치금회수 30억 1천 3백만원(전년대비 △5억 5천7백만원), 이자수입 1억 5천 4백만원(전년대비 △ 2천만원) 등임.

####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수입계획〉

(단위 : 천원)

항 목	수 입 계 획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 감
합 계	3,428,087	4,046,468	△618,381
융자금회수(이자포함)	261,089	256,873	4,216
예탁금원금회수	0	0	0
예치금회수	3,012,948	3,570,145	△557,197
예수금	0	0	0
이자수입	154,050	173,676	△19,626
기타수입	0	45,774	△45,774

- 지출계획 편성안은 34억 2천 8백만원(전년대비 △6억1천8백만원)으로 비  
용자성 사업비 6억8천1백만(전년대비 △1억4천8백만원), 예치금 25억4  
천2백만원(전년대비 △4억7천1백만원)임.

###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지출계획〉

(단위: 천원)

지 출 계 획			
항 목	지 출 액	전 년 도 지 출 액	증 감
합 계	3,428,087	4,046,468	△618,381
비용자성사업비	680,675	828,520	△147,845
용자성사업비	200,000	200,000	0
기본경비	5,000	5,000	0
예탁금	0	0	0
예치금	2,542,412	3,012,948	△470,536

- 자활계정의 고유목적사업비는 2017년 증가하였으나, 2018년 81.2%, 2019년 28.3% 감소하였고, 2020년 증가세를 보이다 2021년도에 다시 14.4%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예치금은 전년대비 15.6% 감소하였음.

###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적립금	적립금 총계	6,267	6,752	7,748	7,433	6,962	
	적립금 총계 증가율	△41.6%	7.7%	14.8%	△4.1%	△6.3%	
수입	합계	증감	4,724	△4,261	657	△125	△618
		전년대비증가율	154.8%	△54.8%	18.7%	△3.0%	△15.3%
	출연금	증감	0	0	0	0	0
		전년대비증가율	0%	0%	0%	0%	0%
지출	합계	증감	4,724	△4,261	657	△125	△618
		전년대비증가율	154.8%	△54.8%	18.7%	△3.0%	△15.3%
	지출액	금액	5,487	△5,398	△339	190	△147
		전년대비증가율	502.0%	△82.0%	△28.7%	22.5%	△14.2%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수지총 괄비교	고유목적 사업비	증감	5,186	△5,097	△339	191	△148
		전년대비증가율	476.7%	△81.2%	△28.8%	22.8%	△14.4%
	예치금	증감	△493	867	996	△315	△471
		전년대비증가율	△25.2%	59.2%	42.7%	△9.5%	△15.6%
	예탁금	증감	0	0	0	0	0
		전년대비증가율	0%	0%	0%	0%	0%

## 2.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 ○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의 수입·지출계획을 보면, 수입액은 788억 8천 1백만원 전년대비 4,511억 1천 1백만원이 감액되었음.
- 구체적 수입내역을 보면, 전입금 128억 3천 7백만원(전년대비 감 2,371억 6천 3백만원),예치금 회수 628억 2천 9백만원(전년대비 감 1,785억 6천 2백만원), 이자수입 32억 1천만원(전년대비 감 17억 7천 9백만원), 기타수입 5백만원으로 되었음.

####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수입계획〉

(단위 : 천원)

항 목	수 입 계 획		증 감
	수 입 액	전 년 도 수 입 액	
합 계	78,881,048	529,991,842	△451,110,794
융자금회수(이자포함)	0	0	0
전입금	12,837,000	250,000,000	△237,163,000
보조금	0	266,000	△266,000
예탁금원금회수	0	33,340,000	△33,340,000
예치금회수	62,829,048	241,391,392	△178,562,344
이자수입	3,210,000	4,989,450	△1,779,450
기타수입	5,000	5,000	0

- 지출계획 편성안은 788억 8천 1백만원 으로 전년대비 4,510억 9백만원 이 감액되었음.

- 기금은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기금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 바, 소관 일부 기금(계정)을 살펴보면, 고유목적사업보다는 현재액과 예치금 등으로 쏠림 현상을 보여 기금의 취지에 맞지 않는 현상이 일부 나타나고 있음.

###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지출계획〉

(단위:천원)

지 출 계 획			
항 목	지 출액	전 년 도 지 출액	증 감
합 계	78,881,048	529,991,842	△451,110,794
비용자성사업비	15,268,200	510,558,144	△495,289,944
용자성사업비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	63,612,848	19,433,205	44,179,643
기타지출	0	493	△493

-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의 경우, 고유목적사업비는 2021년의 경우 전년대비 97.0% 감소하였고, 예치금은 227.3% 증가하였음.
- 또한 2020년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해 내국인 대상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가구별 30~50만원씩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출 계획 4,436억 1천 1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같은 조건의 외국인을 대상으로도 324억<sup>11)</sup>의 지출 계획을 세웠음.

11) 11월 4일 기준 32,082건, 총 10,155백만원 지급완료(일부 수령 대상자의 선불카드 미수령(지방출장 등)으로 지급일정이 지연됨)



###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적립금	적립금 총계	274,395	275,310	274,731	62,829	63,613	
	적립금 총계 증가율	△1.0%	0.3%	△0.2%	△77.1%	1.2%	
수입	합계	증감	160,601	30,657	34,267	285,702	△451,111
		전년대비증가율	855.9%	17.1%	16.3%	117.0%	△85.1%
	출연금	증감	-	-	-	250,000	△237,163
		전년대비증가율	-	-	-	100.0%	△94.9%
지출	합계	증감	160,601	30,657	34,267	285,702	△451,111
		전년대비증가율	855.9%	17.1%	16.3%	117.0%	△85.1%
	지출액	금액	35	3,157	4,726	501,620	△495,291
		전년대비증가율	3.4%	299.0%	112.2%	5611.6%	△97.0%
수지총 괄비교	고유목적사 업비	증감	35	3,157	4,726	501,619	△495,290
		전년대비증가율	3.4%	299.0%	112.2%	5611.6%	△97.0%
	예치금	증감	160,567	27,499	29,541	△215,918	44,180
		전년대비증가율	904.9%	15.4%	14.4%	△91.7%	227.3%
	예탁금	증감	0	0	0	0	0
		전년대비증가율	0%	0%	0%	0%	0%

- 복지정책실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내 삶을 지키는 서울복지 구현’을 목표로 사람 중심의 촘촘한 복지시정으로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하는 사업을 예산에 반영해 2020년도 대비 2.2% 증액 편성한 8조 3,622억 1천 6백만원임.
- 2021회계연도 복지정책실 예산안을 정책별로 구분하면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과 복지서비스 혁신을 통한 전달체계 개선 정책사업 36.8%, 민관 복지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정책사업 3.7%, 초고령 시대에 대비한 어르신 맞춤형 복지 실현 정책사업 38.5%, 50+인프라 확충을 통한 50+지원기반 마련 및 어르신 일자리 발굴 활성화 정책사업 4.0%,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정책 사업 3.7%, 장애인의 자립역량 강화로 실질적 자립 도모 정책사업 10.9%, 사회취약계층 보호 및 자활지원 강화 정책사업 0.8% 등이 증가되어 편성되었음.
- 제출된 예산안 중 돌봄특별시를 표방하며 돌봄서비스 통합 연계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는 ‘돌봄 SOS센터’의 경우 ’19년도 시범사업에 대한 사업효과도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 시점에서 사업을 조기에 전 자치구로 확대하였음. 이에 따라 기본모형에 다른 서비스 제공인력의 미배치 및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충분한 공급이 되지 않은 점과 지역별 서비스 제공 실적에 편차가 존재한다는 점 등에 장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중앙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연계되어 대상자가 산출되어 사업의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중앙정부 정책과 연동된 사업 계획 및 지속적인 추이 산출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완화 추세에 따른 제도의 선제적 완화를 검토하여 비수급

빈곤층 등 사각지대 문제에 대비가 필요함.

- 복지정책실 산하의 재단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서울시복지재단'의 2021년 예산은 전년대비 12.0% 증액 편성되었는 바,
  - 서울시복지재단이 출자출연기관으로 설립된 후 서울시 복지시정에 대한 다방면의 역할은 인정되지만, 사회복지 법인 인증 사업 등 지속적으로 사업 실적이 미비한 사업이나, 사회복지시설 평가 컨설팅 및 만족도 조사 등과 같이 용역 사업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함.
  - 서울시 복지업무의 상당 부분을 서울시복지재단에 위임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예산이 재단에 집중됨. 그러므로 서울시는 사업 예산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지재단의 사업방향이나 점검에 있어서의 역할과 감독기능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임. 따라서, 금번 '서울시복지재단'의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경우 돌봄의 공공성 강화라는 취지는 인정되나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재무건전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었으므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해당 사항에 대한 집행부와 재단 차원의 검토가 필요함.
  - 50+재단은 북부, 동남캠퍼스의 설립 등으로 예산이 증액편성 되었으나, 설립한 지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재단 성격과 대상에 대한 불명확성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어르신복지과는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12.3%를 증액편성하고 있으나, 주요한 내용은 국비매칭인 기초연금 지급액이 늘어났기 때문임. 세부적으로는 기초생활 사각지대 어르신 지원사업 등 복지정책실 내에서 유사·중복 성격이 있는 사업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인생이모작과는 보람일자리 사업의 경우 사회공헌일자리지원(공모) 사업을 통해 장애인 시설 등 서비스 인력을 확대하고 보람일자리 참여자의 활동 기간을 연장시켜 증액편성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보람일자리 사업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그 목적성이 명확하지 않은 사업이 보이며, 향후 보람일자리 참여자들이 참여연령을 넘긴 후 사회연계 방안까지의 고민이 필요함.
- 뇌병변 장애인 비전센터 운영 사업의 경우,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이 어려운 중증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지역사회 서비스 기반이 취약해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고 있어, 최중증 뇌병변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공간 확보, 교육·돌봄·건강 등 종합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점을 볼 때,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설치·운영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 다만, 집행부에서 당초 설치하고자 계획했던 뇌병변 장애인 비전센터 2개소 중 마포 1개소만 설치되었으며 2021년 예산에 신규 비전센터 설치비를 편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2개소에 대한 운영비 예산을 반영하는 편성상 오류가 있어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임.
- 금번에 제출된 복지정책실 소관 사업들은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한 돌봄 공백 해소와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 확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강화 및 안정적 소득 기반 제공으로 생활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및 중증장애인 연금 확대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사업 수혜대상자가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임을 감안할 때 그 긴급성과 시급성은 인정되어짐.
- 그러나 복지정책실은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제공하기 위해 인한 사업의 양적 확대에 치중하기 보다는 실시하고 있는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서비스의 질 향상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함.

- 또한 산하 출자출연 재단에 집중되어 있는 여러 서울시정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재단에 대한 관리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임.
- 복지정책실은 사업 간 기능이 중복되어 있는 사업을 선별하여 중복 기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사업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아울러 복지정책실은 예산수립 시 보다 세밀한 예산편성을 통하여 연례적·반복적인 불용액 발생을 방지해야 함. 또한 수혜대상자에게 적시에 지원되지 못하는 문제 등으로 인한 비효율적 기회비용 또는 부족액이 발생하지 않기 위하여 관련 예산안에 대한 적절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바임.